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6호 2015(571~605)

임진정계시 '입지암류(入地暗流)'의 위치와 '토문강원(土門江源)'의 송화강 유입 여부

李康源*

A Reinvestigation on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Location of 'Yipjiamlyu' and the Confluence of 'Tomungangweon' into the Sungari River

Kang-Won Lee*

요약 :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入地暗流)'는 지리학적으로 '복류시작지점'을 의미하며, 오늘날 대각봉 북북동의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이다. 둘째, 임진정계시 '토문강원(土門江源: 두만강원)'〔흑석구〕은 송화강에 유입되며, 목극등과 조선측 임진정계 참여자들도 1712년 5월 17~18일경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 입각하여 임진정계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목극등은 정계비를 압록강·송화강 최상류 분수계 부근에 세웠다. 압록강·토문강(두만강)의 최상류 분수계를 찾는다는 그의 의도대로라면, 정계비는 대연지봉에 세웠어야 한다. 5월 12일 그는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흑석구〕이라고 간주한 하도에서 '입지암류'를 발견했으며, 이곳으로부터 하도를 따라 복류하는 물이 다시 용출하여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하고, 5월 15일 정계비를 세웠다. 그러나 5월 17~18일경 이 하도가 토문강(두만강)이 아닌 '서류하천'(송화강 지류)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5월 19일 그는 다시 조선측이 가리킨 두만강(토문강) 용출처로 향했으며, 도중에 물이 나오는 것('水出')을 발견하고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물줄기가 다시 용출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가 '입지암류' 지점에서 복류하기 시작하여 '수출'에서 다시 나와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는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입지암류'–'수출'–토문강(두만강) 본류」로 물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청 국경으로 삼았으며, 그중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입지암류'–'수출'」을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목극등 귀국 후인 8월초 조선측 경계표지물 설치 실무자들은 목극등이 지목한 '수출'이 두만강(토문강) 수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조선측 실무자들은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원)'–황화송전자 부근–'수출'」을 목극등이 설정한 경계로 이해하고 경계표지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자신들이 확인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까지 경계표지물을 연결하였다. 조선정부도 1713년 3월 이를 추인하였고, 이후 이러한 실무자들의 견해에 따라 중간의 경계표지물 미설치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경계표지물 설치에 대한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의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조선측 실무자들이 이렇게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은 황화송전자 부근을 목극등의 '입지암류' 지점으로 이해했고, 자신들이 확인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가 진정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진정계시 조·청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토문강)을 국경으로 인식하고 정계에 임하였다. 문제는 두만강(토문강) 수계를 잘못 이해했다는 점이다. 압록강에 대한 수계 판단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ekong@jbnu.ac.kr

은 비교적 정확했으나, 두만강(토문강)에 대한 수계 판단에서 유일하게 옳았던 것은 조선측 실무자들이 발견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였을 뿐이다.

주요어 : 임진정계, 백두산정계비, 입지암류, 토문강원, 송화강, 두만강

Abstract : This research revealed that 'Yipjiamlyu' in the Mukedeng's map is geographically 'a beginning point of underflow,' whose location is on the Heishigou's riverbed(E.L. 1,840m) in the NNE side of Daegakbong peak, and that 'Tomungangweon'(Heishigou) is one of the upstream reach of the Sungari River, which, according to historical documents and my fieldwork, Mukedeng also knew at the time of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YBMD).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reinterpret the processes of YBMD. Mukedeng set up the Baekdusanjeonggyeobi on the mistaken assumptions on the linkage of 'Yipjiamlyu' and Tumen River. It should have been set up on the Daeyeonjibong peak. Mukedeng found the 'Yipjiamlyu' on the riverbed of 'Tomungangweon'(Heishigou), went downstream, and realized that this river did not flow into the Tumen River. During the search for the source of Tumen River, he found a water stream, and regarded it as the source of Tumen River. He speculated that the water at the 'Yipjiamlyu' flows through the underground to reappear at the his 'identified' source of Tumen River. Consequently, he adjured the construction of demarcation from Baekdusanjeonggyeobi through 'Yipjiamlyu' to the his 'identified' source of Tumen River. The water stream pointed as the source of Tumen River, however, was not part of the upstream reach of Tumen River. Actually, Korean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establishing boundary features, set up the demarcation from Baekdusanjeonggyeobi through Huanghuasongdianzi to the true source of Tumen River identified by themselves, which Mukedeng had not intended. The ambiguity of the location of 'Yipjiamlyu' caused a difference between Mukedeng's original request and Korean officials' implementation in the boundary demarcation. Throughout the whole processes of YBMD, Korea(Joseon) and China(Qing) both mistook the real geography of the river system. Their understanding on Yalu River system was correct. But the identification of the spring source of the Tumen River by Korean participants was the only geographically correct result related on this river system in YBMD.

Key Words : Yimjin(1712) Boundary Making and Demarcation, Baekdusanjeonggyeobi, Yipjiamlyu, Tomun River, Sungari River, Tumen River

1. 서론

이 글에서 '임진정계(壬辰定界)'라고 칭하는 것은 1712년(壬辰年, 朝鮮 肅宗 38年; 淸 康熙 51年) 5월 15일 백두산 정상 부근에 '정계비'를 설치한 사건을 전후로 한 일련의 국경획정 및 경계표지물 설치 과정을 말한다. 1885년과 1887년의 조·청 국경 회담을 각각 '을유감계(乙酉勘界)', '정해감계(丁亥勘界)'라 하고, 조선시대 주요 사건명 앞에 해당연도의 간지[干支(太歲)]를 붙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1712년 정계비 설치를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임진정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한 임진년(1712년)에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비석은 설치시점에 따라서 '임진정계비', 또는 설치지점에 따라서 '백두산정계비', 약칭으로 '정계비'라고 부르기로 한다.

백두산정계비는 임진정계 과정에서 설치된 경계표지물 중 하나이다. 정계비 건립 이후 설치된 경계표지물(石堆·土堆·木柵)은 임진정계 연구의 핵심 사안이 되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표지물의 방향 여하가 이른바 '간도영유권(間島領有權)' 주장의 성립 여부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정계비 비문 중에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 언급되고, 정계비와 이어져 있는 하천 동남안에 경계표지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 하천이 두만강(豆滿江)이 아닌 송화강(松花江)으로 흘러든다는 사실은 이른바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정계비 비문 중의 '토문(土門)'과 관련하여, 임진정계 당시 '토문강(土門江)'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강석화, 2000, 56-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비의 위치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경계표지물의 방향으로 인해 논란은 지속되었다.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길은 오늘날「흑석구–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타타르 해협(오호츠크 해 남단)」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정계비의 위치와 기존에 확인된 경계표지물의 방향만 따르자면, '간도(間島)'보다 훨씬 큰 면적의 땅이 조선의 영토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고구려·발해의 고토'라는 인식이 결합되면서 고토회복주의적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나마 비교적 현실에 가까운 것이「정계비–'토문강'(흑석구)–'분계강'(해란강)–두만강」으로 하천이 이어지며, 그 남쪽이 조선의 영토라는 상상이었다. 그로써 포괄되는 범위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간도'의 범위[1]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土門江'(黑石溝)이 '分界江'(海蘭江)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계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진어의 음역이며 '경계를 나누는 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이강원, 2007b).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이화자(李花子) 박사가 발견한 '도화선(圖和線) 도로변 토퇴군'(이화자, 2012; 2013)은 임진정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이화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에 4차에 걸친 답사[2]를 통하여,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이「정계비–흑석구 황화송전자(黃花松甸子)[3] 부근–두만강 모수림하(母樹林河) 발원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화자의 발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7일~7월 4일 그리고 8월 4~8일, 21~26일 등 3차에 걸쳐 두만강과 백두산 일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최근 삼엄해진 국경상황 및 기상상태로 인해 조사가 쉽지 않았으므로, 3차에 걸쳐 중복적인 조사를 하였다.

답사를 통하여, 임진정계시 설치된 경계표지물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화자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이화자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얻은 몇 가지 다른 결론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4]

첫째, 이화자는 목극등(穆克登)이 지적한 '입지암류(入地暗流)' 지점이 황화송전자 부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입지암류' 지점이 대각봉(大角峰) 북북동 방향에 있는 흑석구 하도라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 위치를 제시한다.

둘째, 이화자는 흑석구가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평평하게 흐르다가 사라지며(平衍無蹤)', 오도백하(五道白河: 송화강 지류의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흑석구가 오도백하, 곧 송화강으로 유입되며, 이것을 목극등과 조선측 일행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목극등이「정계비–'토문강원'–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입지암류' 지점–'제1파 초파 수출(第一派初派 水出)' 지점」을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조선측에 요구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임진정계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2. 임진정계시 백두산 답사일정과 경로

목극등이 정계비를 설치한 것은 1712년 음력 5월 15일(양력 6월 18일)이다. 그를 전후한 목극등의 답사 경로 및 지숙처(止宿處), 조선측 접반사 일행의 경로 및 지숙처, 주요 하천과 산봉우리의 위치 등은「임진목호극등정계시소모(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일명 '백두산정계비도' 또는 '백산도': 이하 약칭 '목극등 지도', 그림 1)[5]와 김지남(金指南)의『북정록(北征錄)』, 홍세태(洪世泰(김경문(金慶門))의「백두산기(白頭山記)」, 박권(朴權)의「북정일기(北征日記)」, 김노규(金魯奎)의『대한북여요선(大韓北輿要選)』에 실린「이의복기사(李義復記事)」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목극등 지도에서 「압록강–백두산 정상부–정계비–대각봉 북쪽–입지암류–북류 하천–두만강 상류」 등으로 이어지는 실선은 목극등의 답사 경로를, 중간의 세모 표시는 그의 지숙처를 나타낸다. 그 아래쪽에 있는 빗금 친 실선은 접반사 박권 일행의 경로를, 원 표시는 지숙처를 나타낸다(강석화, 2000, 65). 이 중 목극등 일행의 날짜별 주요 사건과 지숙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김지남의 기록에 따르면, 목극등은 4월 6일 심양(瀋陽)을 출발하였고, 30일 압록강을 건너 후주(厚州) 동대 파수(東臺把守) 앞 강변에 도착하였으며, 5월 1일 구갈파보(舊乭坡堡)에서 접반사 박권 일행과 상견하였다. 5월 4일 혜산진(惠山鎭)에 이르렀고, 5월 7일 혜산진을 출발하였다. 8일 무산(茂山)으로 향하는 접반사 박권 일행과 헤어져 압록강을 건너 백두산을 향해 북상하였다. 이후로부터 정계비를 세운 15일까지 목극등 일행의 행적은 홍세태(김경문)와 이의복의 기록에 의해 전해진다. 두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자세히 대조해 보면 일치하고 또한 보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극등 일행은 5월 10일 소백산 북쪽의 박달곶(朴達串)에서 지숙하였다.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에 따르면, 11일 백두산 정상부에 올랐고, 압록강 발원지인 '산혈(山穴)'과 압록강·두만강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 '중천(中泉)'을 발견하였다. 이의복의 기록도 서술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상 일치한다. 다만, 이의복이 "갈밭에 돌아와 잤다(還宿蘆田)."고 했으므로, 10일의 박달곶 갈밭 지숙처에 돌아와 잔 것이다.

12일의 활동에 대한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에 따르면, 목극등은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토문강원류(土門江源流: 두만강원류)'가 중간에 끊어져 땅속으로 숨어 가는 것(間斷伏行地中)을 발견하고, 청측인원 2명에게 길잡이(指路人) 갑산사람 김애순(金愛順)과 같이 가서 물길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군관 조태상(趙台相)·역관 김응헌(金應憲)도 뒤따라갔다. 60여 리를 돌아다니다 날이 어두울 때 돌아와, 그 중 청측인원 2명이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白水果東流)."고 보고하였다.[6]

같은 날에 대한 이의복의 기록에 따르면, 목극등 일행은 '입지중은류(入地中隱流)'를 발견하였고, 그로부



그림 1. 「임진목호극등정계시소모(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
주: 규장각 『여지도(輿地圖)』(古4709-1) 수록.

표 1. 1712년 목극등의 백두산 지역 답사 일정과 경로

날짜	주요 사건	목극등 지도의 지숙 지점	근거
5월 07일	혜산진 출발.	검천 물가	홍세태 5월 7일 기록
5월 08일	접반사 일행과 헤어짐. 서쪽으로 압록강을 건넘.	압록강 서안	홍세태 5월 8일 기록
5월 09일	압록강 서안을 따라 상류로 올라감.	압록강 서안 화피덕(樺德) 근처	홍세태 5월 9일 기록
5월 10일	압록강을 5차례 건너면서 상류 방향으로 올라감.	소백산 북쪽 박달곶(朴達串)	홍세태 5월 10일 기록
5월 11일	백두산 정상부 등정. 압록강 발원지(山穴) 발견. 중천(中泉) 발견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이라고 명명함.	소백산 북쪽 박달곶	홍세태 5월 11일 "산을 내려오니 어두워져서 천막에서 잤다." 대한북여요선 이의복 기사 "갈밭에 돌아와 잤다(還宿蘆田)."
5월 12일	흑석구 남안에서 북안으로 건너가서 다시 하도로 내려옴. '입지암류' 발견. '토문강원(두만강원)'이 복류한다고 생각함.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김응헌·조태상 물길 따라 60여 리 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옴.	소백산 북쪽 박달곶	홍세태 5월 12일 기록 이의복 기사
5월 13일	비석 새김.	소백산 북쪽 박달곶	이의복 기사 "청사가 이곳에 여러 날 머물렀다."
5월 14일	비석 새김.	소백산 북쪽 박달곶	〃
5월 15일	정계비 세움(양력 6월 18일).	소백산 북쪽 박달곶	〃
5월 16일	박달곶 갈밭 지숙처 떠남.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지적한 하도 동남안을 따라 내려감.	대각봉 근처	김지남 5월 19일 기록, "15일에 비석 세우는 일을 마치고 16일에 길을 떠났다."
5월 17일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지적한 하도 동남안을 따라 내려감.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황화송전자 부근)	김지남 5월 18일 기록,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고 있다."
5월 18일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지적한 물이 마침내 '서류 하천'(송화강 지류)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황화송전자 부근)	박권 5월 19일 이의복 서신
5월 19일	토문강(두만강) 용출지역으로 이동. '제1파 초파' 발견, '토문강원(두만강원)'이 '水出'한 것으로 생각. '제2파' 그리고 '제1파'와 '제2파' 합류점 목격.	목극등이 '제1파'와 '제2파'가 합류하는 곳이라고 지적한 곳에서 20리 아래(석을수 북안)	허량·박도상의 진술 내용 "또 20리를 옮겨 내려가 멈추어 숙영할 때"
5월 20일	두만강을 건넘.	두만강 대안(廣坪溝 동쪽)	지도로 추정
5월 21일	두만강 건넘. 대홍단수, 어윤강 건넘. 접반사 박권 만남.	어윤강변 역참 임시숙소	김지남 5월 21일 기록
5월 22일	박하천 건넘.	무산부 객사	김지남 5월 22일 기록
5월 23일	완성된 지도 김지남에게 보여줌.	무산부 객사	김지남 5월 23일 기록
5월 24일	지도의 사본을 김지남을 통하여 박권에게 전달.	무산부 풍산진	김지남 5월 24일 기록

자료: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奎章閣 所藏 『輿地圖』(古 4709-1) 收錄), 金指南 『北征錄』, 朴權 「北征日記」, 洪世泰(金慶門) 「白頭山記」,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李義記事」.

터 물이 30여 리를 은류한다는 것을 알았다. 30여 리 은류한다는 것은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조태상·김응헌이 갔다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측 인원 2명과 조선측 인원들은 '입지중은류' 지점에서 30여 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왕복 60여 리를 돌아다닌 것이다.

따라서, 홍세태(김경문)의 '간단복행지중(間斷伏行地中)'과 이의복의 '입지중은류(入地中隱流)' 그리고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入地暗流)'는 그 위치가 같다. 목극등은 동류를 확인하고 돌아온 이들을 '입지암류' 지점에서 만났다. 이의복의 기록에 "청사가 이곳(정계비 부근)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모두는 다시 박달곶 갈밭에 돌아가 잤다.

15일에 비석을 세웠으므로, 13~15일까지는 비문을 짓고 새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아침에는 박달곶 갈밭 지숙처를 떠나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지적한 오늘날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갔고, 대각봉 부근에서 지숙하였다(그림 1).

이상을 통해, 목극등 일행이 10일부터 15일까지 박달곶 갈밭 지숙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극등 지도에는 11일부터 15일까지의 이러한 동선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박달곶 갈밭 지숙처-대각봉 부근 지숙처-북류하천 시작점 부근 지숙처」로 연결되는 선으로 하여금 자신이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본 지점들을 거치도록 그렸다.

지도로만 본다면, 16일에는 대각봉 부근에서 지숙한 것이 분명하고, 17일에는 대각봉 부근에서 하루 더 지숙하였거나, 지도의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에서 지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남의 기록에 근거하여 역산하면, 18일에는 지도의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에서 지숙한 것이 분명하다. 지도의 북류하천 시작지점은 김애순 등과 같이 갔던 청측인원 2명이 돌아와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고 한 곳 부근으로, '입지암류' 지점으로부터 약 30여 리 떨어진 지점일 것이다. 대략 오늘날 황화송전자 부근이다.

이의복은 박권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를 세운 곳에서 동류하는 물은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로 들어갑니다. 총관은 이것이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가찰봉(加察峯) 아래 솟아나는 물로 향한다고 합니다. 접반사·감사와 상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7]라고 하였다. 이 서신을 무산부에 있는 박권은 19일 저녁에 받았다. 18일 지숙처로 추정되는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무산부까지는 짧게 계산해도 100㎞가 넘는다.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에 김경문이 15일 정계비 설치 후 산에서 내려왔다[8]고 하였고, 김지남의 기록에 17일 날이 저물 무렵 김경문이 말을 달려온 필첩식 소이선(蘇爾禪(蘇爾昌))과 함께 무산부에 돌아왔다[9]고 하였으므로, 정계비로부터 무산부까지는 48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또 무산부에서 박권이 18일 이른 아침에 받은 말을 달린 보고(馳告)[10]도 이의복이 16일 오전에 정계비 부근의 '토문강원'에서 보낸 것이 분명한데, 4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까지가 60여 리이므로, 황화송전자로부터 무산부까지 말을 달린 보고는 30~36시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권이 19일 저녁에 받은 서신을 이의복이 발송한 시점은 18일 오전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늘날 안도현(安圖縣) 삼도향(三道鄕)이나 송강진(松江鎭) 정도는 가야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이 서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18일 지숙처로 추정되는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하천을 따라 짧게 계산하여도 7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왕복 140㎞ 이상이다. 목극등이 일행 중 일부를 시켜 직접 '서류하는 하천'을 확인했다 해도, 최소한 이틀은 꼬박 필요했을 것이다. 목극등 지도에 서류 하천이 그려져 있지만, 그곳까지 왕복한 경로가 그려져 있지 않으므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목극등 일행은 황화송전자 부근에 이르러 하천이 전체적으로 북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11] 자신이 가지고 온 지도[12]와 대조한 후, 서류하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의복이 무산부에 있는 박권에게 서신을 보낸 시점으로 추정컨데, 이르면 17일 오후, 늦어도 18일 오전 중에는 목극등 자신이 따라 내려온 하천이 마침내는 '서류하는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17일 밤 역시 지도의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에서 지숙한 것이 분명하다.

목극등 지도(그림 1)로만 보면, 17일에 대각봉 부근에서 흑석구를 남에서 북으로 건너고, 다시 북에서 남으로 건너면서, '입지암류' 지점을 통과한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일에는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내려가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에서 지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도에 이렇게 표시된 것은 12일에 갔던 주요 지점들을 대각봉 지숙처로부터 북류하천 시작점 부근 지숙처에 이르는 선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18일 오전, 목극등은 정계비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골짜기, 자신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하천, 곧 오늘날 흑석구가 토문강(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북류·동류·북류하다가 마침내는 '서류하는 하천'(송화강 지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조선측 길잡이(指路人) 등이 토문강(두만강)의 용출처는 이곳이 아니라 동남쪽 4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자,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13]

19일 목극등은 흑석구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동남방향으로 토문강(두만강) 용출처를 향하여 이동하였고, 중간에 물('第一派 初派')을 만나자, 이 물이 대각봉 부근에서부터 '입지암류'하다가 다시 용출한 것이며 토문강(두만강)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그리고 후에 지도에 '水出'로 표시하였다). 다시 또 물('第二派')을 만나자, 이 물이 토문강(두만강)의 '원파(元派)'가 분명하다고 말하였고, 다시 소류(小流)가 '제2파'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제1파 초파'가 이 소류를 통하여 '제2파'에 합류한다고 말하였다. 다시 20여 리를 내려가 지숙하였다. 목극등 지도에서 증산(甑山) 북쪽에 있는 하천 북안에 세모꼴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오늘날 석을수(石乙水: 상두랑수) 북안에서 지숙한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두만강을 건넜고, 다시 오늘날 광평구(廣坪溝)를 건너 지숙했다. 21일에는 두만강을 건너와 다시 대홍단수(大紅丹水)[14]와 어윤강(魚潤江)[15]을 건너 어윤강변 역참 임시숙소에서 접반사 박권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지숙했다. 22일에는 박하천(朴下川)[16]을 건너 무산부 객사에 도착하였다. 23일 무산부 객사에서 역관 김지남에게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었고, 24일 무산 풍산진(豊山鎭)에서 동일한 지도를 한 벌 더 만들어 김지남을 통해 접반사 박권에게 전달하였다. 이 지도가 '목극등 지도'이다(그림 1). 이후 목극등은 두만강 본류를 따라 하구가 보이는 곳까지 갔다.[17]

목극등의 답사경로와 발견내용, 발언, 지숙처 등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입지암류' 지점이 황화송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목극등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흑석구는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정계비와 '입지암류'의 위치

1) 정계비의 위치와 목극등의 수계 판단 오류

목극등이 가리킨 '입지암류'의 구체적인 위치와 그가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하천의 송화강 유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계비의 위치에 대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임진정계 경계표지물 중 하나인 정계비는 1712년 5월 15일 세워졌으며, 실제로는 압록강·송화강 분수계에 위치한다. 물론 당시 목극등은 정계비 입비처가 압록강·두만강의 최상류 분수계라고 생각했다. 목극등은 그 지점을 '분수령(分水嶺)'이라 명명하였는데(홍세태, 백두산기, 5월 11일), 이 역시 압록강·토문강(두만강)의 '분수령'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후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들에 '분수령'이라는 지명이 표기되는 것은 목극등의 명명에 기인한다(이강원, 2010, 475-477).

그러나 실제로 압록강·두만강의 최상류 지표수 분수계는 대연지봉(大臙脂峰: 해발 2,359.5m)[18]이다. 대연지봉은 압록강·송화강·두만강 등 세 강의 지표수 분수계가 된다. 목극등은 압록강·토문강(두만강) 최상류 분수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다.[19] 따라서 그는 대연지봉에 정계비를 세웠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록강·송화강 최상류 분수계[20]부근인 현재의 위치에 정계비를 세웠다. 결국 목극등이

세운 정계비의 위치는 잘못된 것이다.

정계비는 현재 비좌만 남아 있고 비석은 사라졌으며, 비좌는 백두산 최고봉(2,750m)으로부터 진방위각 약 100°, 지도상 직선평면거리 약 1,860m 지점에 위치한다. 백두산 최고봉으로부터 비좌까지 과거의 등산로(현재의 도로)를 따라 거리를 추정하면, 지도상 평면거리 약 3.8~4㎞이다. 비좌의 해발고도는 중국측의 기록에 의하면 2,250m이고(劉忠傑·沈惠淑, 1993, 128), 북한지도[21]에 의해 추정하면 2,383m이다. 구글어스 프로(Google Earth Pro) 2007년 영상에 의해 추정하면 대략 북위 41°59′24.34″, 동경 128°05′57.48″이며, 남남서-북북동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주차장의 남남서쪽 상부 모서리 서변(백두산쪽)에 위치한다. 비석의 오른쪽(북쪽) 바로 옆에 북한군 초소가 있다. 중국측의 해발고도 기록과 북한지도의 해발고도 기록에 133m의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측이 1933년 발행 일제지형도(그림 2)를 참조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제지형도는 정계비의 위치를 실제보다 남쪽에 표시하고 있다.

정계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조선측이 임의로 정계비의 위치를 옮겼다는 주장이 을유감계(1885)와 정해감계(1887)에 참여한 중국 관원이나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으나, 근거가 없다(李花子, 2011). 따라서 우리는 임진정계시 경계표지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하나의 불변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백두산정계비의 비좌가 위치한 지점이다.

정계비의 내용 중 '토문(土門)'이 두만강이 아니라, 정계비와 이어져 2㎞ 정도 동남류하다가 다시 동북류하는, 오늘날 북한에서 '백두천'이라 부르고 중국에서 '黑石溝(흑석구: 헤이스거우)'라고 부르는 하천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문 중의 '土門'은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강석화, 2000, 55-58; 이강원, 2007a; 2007b). 목극등이 수계를 잘못 판단하여, 비석을 압록강·송화강(흑석구: 백두천) 최상류 분수계 부근에 세운 것이다.

당시 목극등 일행은 압록강·두만강(토문강) 최상류 분수계에 정계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하도를 따라 내려가면 두만강(토문강)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결국 그 하천이 두만강(토문강)으로 흘러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복류하다가 용출한다는 두만강(토문강) 원류를 찾아 나섰고, 정계비로부터 복류지점을 거쳐 용출지점까지 경계표지물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2)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의 의미

임진정계시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경계표지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가 목극등 지도(그림 1)에 표시된 '입지암류(入地暗流)'이다. 이것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흐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입지암류'가 표시된 지점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입지암류'와 유사한 표현이 '입지복류(入地伏流),'[22] '입지중은류(入地中隱流),'[23] '석봉암류(石縫暗流),'[24] '암복잠류(暗伏潛流)'[25]이다. '입지복류'는 물이 "땅으로 들어가 복류한다."는 뜻이고, '입지중은류'는 물이 "땅 가운데로 들어가 숨어서 흐른다." 뜻이다. '석봉암류'는 물이 "돌이 꿰매어진 듯이 맞물린 틈으로 숨어서 흐른다."는 뜻이다. 백두산의 부석 골짜기 바닥이 침식되어 현무암·조면암·유문암 암해 및 균열 파쇄대가 노출되고, 지표유출이 지하유출로 전환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암복잠류'는 "숨고 숨어서 땅 속을 흐른다."는 뜻이다. 모두 복류현상과 관련된다.

목극등 지도에는 정계비 아래에 '강원비(江原碑)'라고 쓰여 있고, 정계비 우측에 '토문(土門)'이라는 표시가 있다. 글자의 배치로 보아 '토문강원비(土門江原碑)'라고 이어서 쓰려고 한 것 같다. 여기서 '토문'은 정계비 비문 중의 '토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임진정계의 취지 그리고 목극등과 조선측 참여자들의 본래 의도에서 '토문'은 '두만'을 의미한다. '대각봉(大角峯)' 우측에 '입지암류' 표시가 있고, 훼손되었지만 '감토봉(甘土峯)' 위쪽에 '수출(水出)' 표시가 있다. 이는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가 '입지암류'라고 쓴 지점부터 땅속으로 들어가 복류하기 시작하며, '수출'이라고 쓴 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

라서 목극등 지도에서 '입지암류' 표시는 지리학적으로 '복류시작지점(伏流始作地點)'을 의미한다. 그는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길이 이 지점에서부터 복류하다가 '수출' 지점에서 지표로 나와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지도를 통해 목극등이 「'토문강원비'–'입지암류'–'수출'–토문강(두만강) 본류」를 경계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입지암류'의 위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시노다 지사쿠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는 석퇴·토퇴가 오늘날 흑석구라고 불리는 하천의 동남안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목극등이 당초 '토문강원'이라고 지적한 물을 흑석구로 보았다. 그는 허량·박도상 등이 경계표지물의 방향을 중간에 틀어서 두만강 상류에 연결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다만 일부의 현업원(現業員: 실무자)에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을 이미 실행한 것처럼 (조정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신영길(역), 2005, 132-133)고 하였다. 결국, 그는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흑석구가 목극등이 '토문강'이라고 정한 하천이며, 조선측은 그 동남안에만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는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용출처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 설치공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임진정계시 '입지암류' 등으로 기록된 복류문제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강석화

강석화는 정계비 비문의 '토문'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목극등이 처음 두만강의 수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물은 정계비 바로 북쪽에 있는, 「십이도하(十二道河)–삼도백하(三道白河)–송화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최상류라고 하였다(강석화, 2000, 70에 수록된 그림 4 참조). 그리고 그는 허량·박도상 등이 이 물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닌 것을 곧 알았으나, 그보다 남쪽이나 더 동쪽에 있는 수원에서 나오는 물(오늘날 흑석구) 역시 송화강으로 흘러드는 것인 줄 모르고, 그 곳(흑석구)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였다고 보았다(강석화, 2000, 69).[26] 나아가 그는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언급된 90여 리의 경계표지물 설치공사가 흑석구를 따라서 1712년 시작되었고, 1713년 중간의 미설치 구간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다가 흉년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았다(강석화, 2000, 69-71). 그는 시노다 지사쿠와 마찬가지로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두만강 용출처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목극등이 처음 토문강(두만강) 수원이라고 지적한 정계비 부근의 물과 허량·박도상이 정계비로부터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한 물이 다르다는 강석화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정계비로부터 '입지암류'에 이르는 구간을 임진정계 답사 당시의 기록에 비추어 확인하고, 설치된 경계표지물과 대조한 결과, 두 물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극등의 '토문강원(두만강원)'과 허량·박도상의 '두만강원(토문강원)'은 모두 오늘날 흑석구를 가리킨다. 다만 그 구간의 종점, 즉 '입지암류'의 위치를 다르게 보았을 뿐이다.

(3) 이화자

이화자는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 지점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정계비 동쪽의 골짜기를) 광서연간 감계 때 청측은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라 부르고, 조선측은 '이깔이개'라고 불렀다. (1908년 백두산을 답사한) 유건봉은 이를 '흑석구'라고 명명하였다.…이 황화송구자가 바로 물이 흐르다가 끊긴다는 곳이다. 「백산도」(목극등 지도)에는 그 끝부분에 '입지암류'라고 표기하였다(이화자, 2011, 63).

다시 지도에 표기된 토문강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천지로부터 동남으로 흐르며, 입비처를 지나고 대각봉 북쪽을 경유하여 동남으로 흐른다. 그 방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흑석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흑석구는 입비처로부터 동남으로 뻗어 나가다가 동북

으로 방향을 돌려 수십 리 뻗어나가며, 대각봉 서북쪽을 경유한다. 그리고 골짜기의 끝부분 즉 '입지암류'를 표기한 곳에 이르러서는 천지 동북쪽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는 흑석구는 물론이고 두만강 발원지 및 두만강 상류에 있는 무산 등이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처져 있다(이화자, 2013, 252-253).

이화자는 '황화송구자(흑석구)의 끝부분'을 '입지암류' 지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황화송구자(흑석구)의 끝부분'을 황화송전자(黃花松甸子)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글(이화자, 2012, 156-158; 2013, 272 참조)에서 확인된다. 이화자의 '입지암류' 지점은 정계비로부터 흑석구를 따라 약 54~57리(23~24㎞) 내려간 지점이다(이화자, 2013, 278).

이화자의 이러한 주장은 목극등이 「정계비-황화송전자 부근-'수출'」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화자가 발견하고,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경계표지물은 「정계비-황화송전자 부근-두만강 용출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사람은 조선의 허량·박도상 등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목극등은 「정계비-'입지암류'-'수출'」을 따라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자신의 지도에 '입지암류'라고 표시한 지점부터 복류하기 시작한 물이 북류하천 시작점(황화송전자 부근)에 이르고, 복류하는 와중에 다시 방향을 틀어, 그 자신이 발견한 '두만강 용출처(제1파초파)'에서 나온다('水出')고 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 허량·박도상 등의 실행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입지암류'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입지암류'의 구체적 위치

'입지암류'의 위치에 대한 이화자의 주장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한다.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 지점의 위치는 대각봉(북한자료 2,164m; 일제지형도 2,170m) 북북동(진방위각 약 21°) 방향에 있는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이며, 그 좌표는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26.00″이다. 목극등은 「정계비-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입지암류')-'수출'」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 설치를 요구했다. 허량·박도상 등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은 목극등이 요구한 것과 다르게 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목극등 지도의 방위와 축척 문제

목극등 지도는 축척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특히 백두산 정상부분은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고, 그곳으로부터 멀수록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목극등이 천리경(千里鏡: 망원경), 윤도(輪圖: 나침반)가 설치된 양천척(量天尺),[27] 지도 등을 가지고 왔으므로,[28] 목극등 지도의 방위는 나침반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지도에 의하면, 백두산 정상부에서 자편각은 서편차 약 8°52′이고, 도편각은 서편차 0°35′이며,[29]도자각은 서편차 8°17′이다. 따라서, 목극등의 지도를 오늘날의 지도와 대비하고자 한다면, 목극등 지도의 위쪽(북쪽)을 왼쪽(서쪽)으로 8°17′을 기울여야 하고, 지도에 표시된 사상 사이의 관계에서도 도자각 서편차 약 8°17′을 고려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정계비를 기준으로 천지는 서쪽으로 더 내려가야 하고, 대각봉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한다. 또한 '입지암류'라고 표시된 지점도 대각봉을 기준으로 서북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결국, '입지암류' 표시지점은 대각봉에서 대략 북북동 방향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이듯이, 대각봉에서 '입지암류' 표시지점까지의 거리는 정계비로부터 대각봉까지의 거리보다 짧아야 하며, '입지암류' 표시지점은 목극등이 지숙한 북류하천 시작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지도에서 거리의 일관성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물줄기와 같은 동일한 사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의 비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입지암류' 지점이 이화자가 주장하는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오히려 그보다 대각봉에 상당히 가까운 흑석구 하도로 추정된다.

(2) 이의복의 기록에 대한 검토

한편, 목극등의 지도에는 대각봉 동쪽에서 물길을 남에서 북으로 한 번 건넜다가 '입지암류' 표기지점 부근에서 다시 북에서 남으로 건넜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그를 수행했던 선전관 군관 이의복(宣傳官 軍官 李義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갈밭(蘆田)에 돌아와 잤다. 20여 리를 가서 ㉠토문강변에 이르니, 물의 너비가 가히 30여 보였으며, 흰 모래가 평평하게 덮여 있고, 물 흐른 자국(流痕)이 어지럽게 깔려 있었다. 그를 따라 ㉡5~6리를 가니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바위가 많았고, 또한 흐르는 물(流水)이 있었다. ㉢다시 왼쪽의 덕(德) 위로 올라가 4~5리를 가니, 지세가 점차로 높아졌다. ㉣북쪽으로부터 산을 내려오니 곧 토문강원이 용출하는 곳(湧出處)이었다. ㉤2~3리를 흘러,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30여 리를 은류(隱流)하였다. ㉥다시 용출(湧出)하여, 비로소 큰 내(大川)를 이룬다. ㉦그 위의 물이 없는 곳(無水處)은 혹은 넓고 혹은 좁으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계한(界限)이 분명하였다. 이는 곧 하늘이 남북을 경계 지은 것이다. ㉧분수령은 좁고 넓음이 30여 보 정도이고, 오른쪽 미곤(未坤: 남남서)과 왼쪽 인갑(寅甲: 동북)에 모두 경계가 되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왼쪽 산 아래의 평지가 약간 돌출되어 있고, 그 위에 바윗돌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받침대로 썼다. ㉨청사가 이곳에 여러 날 머무르며 물이 나뉘는 형세를 두루 살피고, 돌을 새겨 기록하였으며, 받침돌을 파서 비석을 세우고, 돌아보며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에서 땅을 얻은 것이 자못 넓다."하였다.[30]

이의복의 기록에서 그 일행이 박달곶 갈밭에 돌아



그림 2. 1933년 일제지형도의 정계비~'입지암류' 지역

주: 大正五年(1916) 測圖, 同九年(1920) 製版, 昭和八年(1933) 印刷發行, 假製版 五萬分一地形圖 惠山鎭 十三號(共十五面)「小白山」,「白頭山」 도엽을 접합한 것임.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 동남안을 따라 석퇴·토퇴가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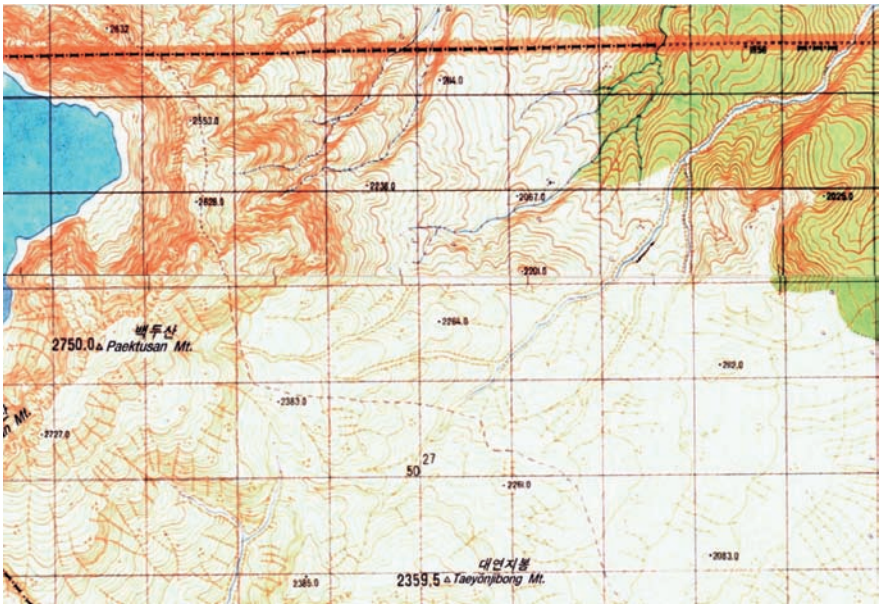


그림 3. 북한지형도의 정계비~'입지암류' 지역

주: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1997, 경인문화사), 일련번호 27, 도엽번호 NK52-5-41(1990년 제작), 「천지」 도엽과 일련번호 37, 도엽번호 NK52-8-01(1982년 제작) 「백두산」 도엽을 접합한 것임. 이 지도에서 북·중 국경선은 잘못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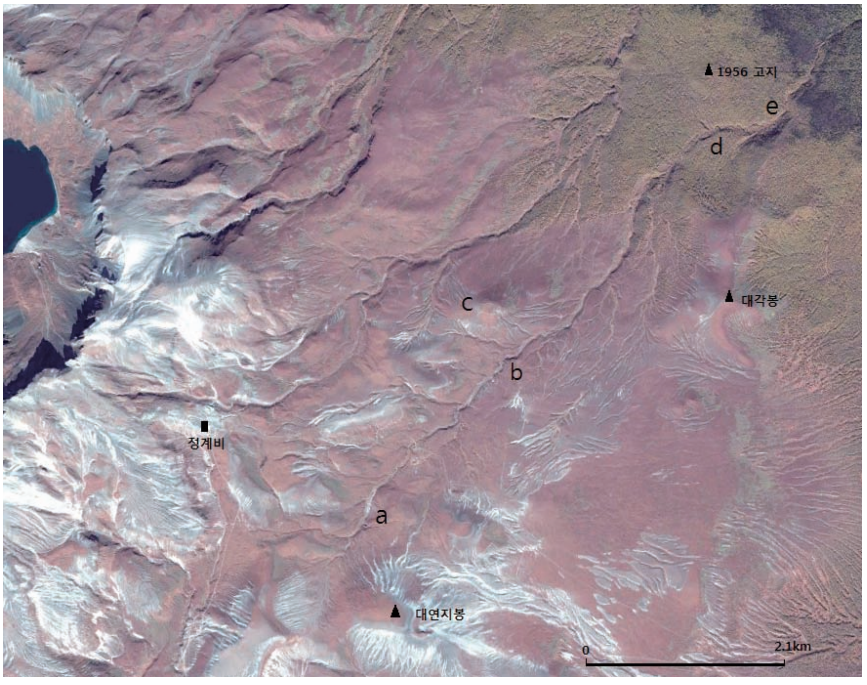


그림 4. 구글어스 프로의 정계비~'입지암류' 지역과 목극등 일행의 경로

주: Google Earth Pro. 2007년 10월 11일 Spot Image.

와 잤다고 한 것은 11일 저녁이다. 따라서 ㉣ 이하의 문장 이전까지는 모두 5월 12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극등이 '입지암류'를 12일에 발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인용문 중 앞부분의 '20여 리'는 갈밭 지숙처로부터 토문강변까지의 거리이다. 인용문의 밑줄 친 ㉢~㉣ 부분이 바로 목극등 지도에 대각봉 부근에서 물길을 남에서 북으로 건넜다가 다시 북에서 남으로 건넌 것으로 표시된 것과 일치한다.

이 기록에서 토문강변을 따라간 5~6리, 왼쪽의 덕 위로 올라가서 간 4~5리를 합하면, 9~11리 정도가 된다. 그런데 지세가 점차로 높아진 지점에서 북쪽으로부터 산을 내려온 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인용문에서 ㉣의 '용출하는 곳(湧出處)'은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9~11리 이상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여기서 용출한 물은 다시 2~3리를 흘러가므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흐르기(入地中隱流) 시작하는 지점은 ㉠지점으로부터 거리 11~14리(=(5~6리)+(4~5리)+(2~3리)=4.62~5.88㎞)[31]에 '지세가 점차로 높아진 지점부터 북쪽으로 산을 내려온' 거리를 합한 지점이다. 바로 이곳이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 표시지점이다.

이상 확인된 사항을 1933년 일제지형도 및 북한지도에 대입하면, ㉢의 '왼쪽의 덕'은 2,201m 고지이다.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에 따르면, "무릇 산비탈이 비스듬하게 높고 위가 평평한 것을 북쪽에서는 덕(德)이라 부른다."[32] 흑석구를 따라 내려가면서 왼쪽에 이러한 지형은 2,201미터 고지 밖에 없다는 것을 1933년 일제지형도(그림 2) 및 북한지도(그림 3),[33] 구글어스 프로(그림 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복의 기록에서 확인된 지점들을 하나씩 구글어스 프로를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 촬영시점별 위성영상들 간의 해상도 및 미세한 좌표 차이 그리고 지도상의 평면거리와 실제거리 사이의 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을 것이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장의 '토문강변'은 대략 북위 41°58′55.08″, 동경 128°07′07.43″의 흑석구 하도이다. 정계비로부터 흑석구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로 대략 2.4㎞되는 지점이며, 흑석구가 완연하게 동북류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지도상 평면거리로 약 0.27㎞ 떨어진 지점이다. 2007년 위성영상에 따르면, 다른 지점과 달리 이 지점의 하도가 평평하게 넓고 흰 모래가 깔려 있다. 일제지형도에는 이 지점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4의 a).

㉡문장에서 "5~6리(2.1~2.52㎞)를 가니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바위가 많았고, 또한 흐르는 물이 있었다."라고 한 곳은 대략 북위 41°59′45.29″, 동경 128°08′11.24″의 흑석구 하도이다. 대략 이 지점에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하상에 바위가 많이 나타난다. 일제지형도에도 이 지점을 전후로 지도상 평면거리 약 1.8㎞의 물 흐름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점은 ㉠문장에서 묘사하는 지점으로부터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로 약 2.5㎞ 지점이며, 정계비로부터는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로 대략 4.9~5㎞ 정도 된다(그림 4의 b).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왼쪽의 덕(德) 위로 올라가 4~5리(1.68~2.1㎞)를 갔고, 지세가 점차 높아졌다."고 하였으니, '왼쪽의 덕'은 2,201m 고지이며(그림 4의 c), 그 고지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높아지는 1,956m 고지를 향해 올랐던 것이다. 이 또한 일제지형도 및 북한지도와 일치한다.

㉣문장에서 "북쪽으로부터 산을 내려오니 곧 토문강원이 용출하는 곳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목극등 일행은 1,956m 고지에서 남쪽에 있는 흑석구 하도로 내려왔다. 정남쪽으로 내려 왔다고 가정하면, 대략 북위 42°00′59.82″, 동경 128°09′48.34″ 부근일 것이다(그림 4의 d).[34]

그리고 ㉤문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지점에서 다시 물이 용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물 흐름은 2~3리(0.84~1.26㎞) 이어지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물이 들어간 이 지점이 '입지암류' 지점이다.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26.00″ 부근의 흑석구 하도에 해당한다(그림 4의 e). 정계비로부터 흑석구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 약 9.5㎞ 거리이다. 오늘날 이 지점에서 하도를 따라 하류로 지도상 평면거리 약 0.57㎞ 가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에 이른다. 일제지형도에도 흑석구 하도 해발 약 2,000m

지점에서부터 약 2㎞ 정도의 물 흐름이 이어지다가, 해발 약 1,840m 지점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도의 모양에 비추어 보아 위에서 확인한 '입지암류' 지점과 일치한다.

㉤문장에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30여 리를 은류(隱流)"한다고 하였으므로, '입지암류' 지점에서 ㉥용출 지점까지 실제거리 12.6㎞(=30×0.42㎞)~14.7㎞(=35×0.42㎞) 정도의 복류구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어스 프로를 통하여, '입지암류' 지점에서 흑석구 하도를 따라 필자가 확인한 흑석구 마지막 토퇴까지 지도상 평면거리를 측정하면, 약 11.6㎞이며, 황화송전자까지는 약 13.1㎞가 된다. 여기에 실제지형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의복 기록의 '30여 리 은류'는 '입지암류' 지점에서 대략 황화송전자 부근까지 복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복과 목극등이 이날(5월 12일) 황화송전자 부근까지 가지는 않았고,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이 60여 리를 다니다가 돌아와서 청측인원 2명이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고 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입지암류' 지점에서 30여 리 떨어진 지점까지 갔으므로, 왕복 60여 리를 돌아다닌 것이 된다.[35] 오늘날 흑석구는 황화송전자로부터 약 2㎞ 정도 북류하며, 이후 약 5㎞ 정도 동류하고, 다시 북류하다가 오도백하에 합류하며, 또 다시 북류하다가 마침내는 서류하여 송화강에 유입된다.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은 황화송전자를 약 5리(2.1㎞) 정도 지나 흑석구가 동류하는 지점까지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장의 "그 위의 물이 없는 곳(無水處)"은 ㉥"다시 용출하여, 비로소 큰 내(大川)를 이루는 곳" 이상의 상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계비로부터 ㉠"물의 너비가 가히 30여 보였으며, 흰 모래가 평평하게 덮여 있고, 물 흐른 자국이 어지럽게 깔려 있었던 곳" 이상을 가리킨다. 이의복의 문장에서는 '유흔(流痕)', '유수(流水)', '용출(湧出)', '은류(隱流)', '대천(大川)' 등이 구분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모두 물이 있거나 있었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무수처(無水處)'라고 한 것은 자신이 연속적으로 언급한 이러한 수문상황 이외에 아예 물이 없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신이 언급하지 않은 최상류부, 곧 정계비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지점까지를 말한다. 이는 그 다음 ㉡문장이 정계비 입비처인 '분수령(分水嶺)'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아직 '대천'까지 가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도 분명하다.

결국, 5월 12일 목극등 일행은 자신들의 답사 그리고 그 하류에 대한 청측 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의 파일럿 서베이(pilot survey)를 통하여, 「유흔(流痕)-유수(流水)-용출(湧出)-은류(隱流)-대천(大川)」으로 이어지는 수문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비록 '분수령'(정계비 세울 곳)에서 '유흔(流痕)'이 있는 곳까지는 '무수처(無水處)'였지만, 이 구간이 "혹은 넓고 혹은 좁으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계한이 분명하니까," '분수령'으로부터 '대천'에 이르는 구간은 하늘이 남북(곧 조선과 청)을 경계 지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월 12일 목극등은 「분수령(分水嶺)-무수처(無水處)-유흔(流痕)-유수(流水)-용출(湧出)-은류(隱流)-대천(大川)」으로 이어지는 수문상황을 근거로, 오늘날 흑석구를 조·청의 경계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양력 6월 중하순 흑석구 하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문상황과도 일치한다.

목극등은 ㉧문장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땅을 얻은 것이 자못 넓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온 지도의 두만강 물줄기 표시 또는 조선측 길잡이 김애순 등이 알고 있던 두만강 수계에 비해, 더 북쪽의 물을 경계로 삼았기 때문에 한 말로 추정된다. 김애순 등 길잡이들은 두만강 물줄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에서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고 보고한 사람도 김애순이 아니라 청측인원 2명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의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갑산인(甲山人)'으로 표현된 사람도 김애순으로 보이는데, 그는 5월 19일 두만강 용출처를 정확히 지목하였다. 심마니 사냥꾼으로 살아온 김애순의 신분상 그의 발언은 임진정계 기록들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조선조정이 두만강의 수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5월 15일 도착한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의 보고에 의해서였다. 그는 "두만강의 근원은 백두산 산마루 중간에서 시작되어 거의 80~90리 단류되었다가, 감토봉 아래 1식 남짓 되는 곳에 이르러 비로소 땅 구멍

속에서 용출하며, 무릇 세 갈래로써 두만강이 된다."[36]고 하였다. 목극등과 헤어진 뒤의 보고이지만, 목극등은 이날 이에 비해서도 더 북쪽의 물을 경계로 삼았다.

그런데, 『대한북여요선』의 「이의복기사」는 정계비를 세운 5월 15일에 멈추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목극등 일행은 적어도 5월 15일까지는 흑석구가 토문강(곧 두만강)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정계의 조선측 참여인원들은 저마다 기록을 남겼다. 접반사 박권, 군관 이의복, 역관 김지남, 그의 아들 역관 김경문(홍세태 대필)[37] 등이 그에 속한다. 차원 허량·박도상은 비변사 진술로서 기록을 남겼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목극등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랐고, 정계비 설치를 목격했으며, 목극등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한 하천(흑석구)이 '서류하는 하천'(송화강 지류)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았고, '제1파 초파 수출' 및 두만강 상류 용출지역 일대를 같이 답사한 조선측 인원 중 관직 서열이 가장 높았던 이의복의 기록이 5월 15일에서 멈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복이 5월 15일까지만 기록하였는지, 아니면 『대한북여요선』의 편찬자인 김노규가 5월 15일 이후의 기록을 생략 내지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5월 19일 접반사 박권이 이의복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비를 세운 곳에서 동류하는 물은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로 들어갑니다. 총관은 이것이 두만강의 원류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가찰봉(加察峯) 아래 솟아나는 물로 향한다고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서신기록과 목극등 지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목극등 일행은 17~18일경 자신들이 따라 내려온 하천이 토문강(두만강)으로 흘러들지 않고, 마침내는 '서류하천'(송화강 지류)으로 흘러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극등 지도에는 그 일행이 북류하천의 시작점 근처에서 지숙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7일 밤과 18일 밤을 그곳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복의 기록에 따르면, 대각봉 부근의 '입지암류' 지점으로부터 30여 리에서 물이 다시 용출하므로, 목극등이 대략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지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지남의 기록에 의하면, 17일 저녁에 큰 비가 내렸다.[38] 따라서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이 12일 보았던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는 물 흐름을 18일 오전에 비교적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우량에 따라서는 12일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의 반환점으로 추정되는 목극등 일행의 17~18일 지숙처 부근의 흑석구 하도보다 물 흐름이 상류로 더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정반대로, 당시 그 지점이 건천(乾川)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지형상 목극등 일행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내려온 하천이 송화강으로 흘러든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북여요선』의 「이의복기사」와 박권의 「북정일기」 중 이의복 서신 내용은 목극등 지도와 일치하며, 실제의 지형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 표시지점(복류시작지점)은 정계비로부터 흑석구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로 약 9.5㎞[39] 떨어진 지점(대각봉 북북동의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26.00″,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의복의 기록과 허량·박도상의 진술 간의 차이

흑석구의 북한 경내 구간을 북한에서는 '백두천'이라고 부른다. 북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하천에서 정상유출이 진행되는 해발고도는 2,000미터 계선이며,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이다.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물매가 급해지는데, 해발 2,000미터에서부터 급격히 급해지면서 하상에 있는 큰 자갈 사이와 천석들에서 샘들이 솟아나온다. 전반적 하상에서 표면유출(겉면유출)은 봄철 눈석임 때와 강한 소나기성 비가 내릴 때에만 1~5일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뿐이다.[40]

목극등 일행이 '입지암류' 지점을 답사한 것이 음력 5월 12일(양력 6월 15일)이다. 김지남의 『북정록』에서 날씨 기록을 추출하면, 목극등이 백두산에 가까운 갑산에 도착한 음력 4월 12일부터 '입지암류' 시작지점을 답사한 5월 12일 사이에 무려 15일 동안 눈, 비, 우박이 내렸다.[41] 특히 5월 1, 4, 5, 6, 7일에 비가 내렸고, 9일에 우박, 10일에 다시 비가 내렸다. 따라서 그

가 흑석구에 도달했을 때, 하도 일부구간에서 1~5일 정도 지속되는 지표유출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비가 내린 10일과 흑석구에 도달한 12일은 2일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목극등 지도로는 그 일행이 17일 낮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설사 그들이 하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 지점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17일 저녁에야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낮에는 물 흐름이 없었거나, 있어도 매우 짧았을 것이다.

이의복이 목격한 이 물 흐름의 길이(2~3리(0.84~1.26㎞))는 일제지형도에 표시된 것(약 2㎞)보다 짧다. 그러나 허량·박도상의 진술 중 "정계비를 세운 곳에서 아래로 25리까지는 혹은 목책을 세우고 혹은 돌을 쌓았고, 그 아래의 물이 나오는 곳(水出處) 5리와 건천(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내의 흔적(川痕)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계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42]라고 한 것에서 '물이 나오는 곳 5리(2.1㎞)'는 거리상 이 부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언급한 물 흐름의 길이는 일제지형도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월 12일 이의복과 허량·박도상은 목극등과 함께 '입지암류' 지점에 같이 갔었다. 그럼에도 물 흐름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허량·박도상의 진술이 그 해 음력 8월초 경계표지물 설치를 위해 다시 갔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양력 7~8월에 비가 많이 내리므로, 음력 8월초 허량이 공사를 위해 갔을 때 물 흐름의 길이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43] 참고로, 1712년 음력 8월 1일은 양력 9월 1일이었다.

허량·박도상의 진술에서 정계비로부터 '입지암류' 시작지점까지의 실제거리는 30리(=25리+5리=12.6㎞)이다. 이의복의 기록에 근거하여 필자가 지도상 평면거리로 추정한 거리 9.5㎞보다 3.1㎞ 길다. 이러한 차이는 지도상의 평면거리와 실제거리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는 두 지점이 일치한다. 북한의 연구자들은 "대연지봉(해발 2,359.5m) 북사면에서 발원하는 흑석구(백두천)의 북한 경내의 길이가 12.7㎞"[44]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체 측정치이다. 대연지봉 북사면의 발원지로부터 북·중 국경까지의 구글어스 프로 지도상 평면거리는 약 9.76㎞이다. 이 구간에서 실제 측정치와 지도상 평면거리 사이에 약 3㎞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계비(해발 2,383m)로부터 북·중 국경까지의 실제거리와 지도상 평면거리(10.7㎞)에도 약 3㎞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의복의 기록과 허량·박도상의 진술에 나타나는 복류시작지점은 일치한다. 다만, 음력 8월 초 허량·박도상이 관찰한 물 흐름의 길이(5리)가 이의복의 그것(2~3리)보다 약 2~3리(0.84~1.26㎞) 상류방향으로 더 길었을 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入地暗流)'는 복류시작지점을 의미하며, 그 위치는 대각봉 북북동에 위치한 흑석구 하도로서, 정계비로부터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 약 9.5㎞, 실제거리 약 12.5㎞ 지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목극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출' 지점(제1파 초파)[45]까지 물이 복류한다고 생각하였고, 경계표지물을 설치하라고 했던 것이다.

(4) 홍치중, 허량·박도상이 황화송전자 부근을 '입지암류'로 본 이유

이상에서 거듭 확인된 바와 같이, '입지암류' 지점이 대각봉 북북동의 흑석구 하도임에도 불구하고, 허량·박도상은 흑석구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정계비로부터 50여 리 아래(오늘날 황화송전자 부근의 흑석구 마지막 토퇴)에 설정하였고, 이는 북평사(北評事) 홍치중(洪致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46] 이들이 경계표지물의 종점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입지암류' 지점을 그곳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지암류' 지점을 이렇게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목극등이 말한 '입지암류' 지점의 모호함 때문이다. 백두산의 지표유출구간·복류구간·용출지점의 연도별 변화 진폭은 크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다. 그러나 1년을 놓고 볼 때, 표유출구간·복류구간·용출지점은 강수량에 따라 변화한다. 흑석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입지암류'는 강수량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치를 지적하지 않는 한, '입지암류' 지점은 강수

량에 따라 다른 곳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목극등 일행(이의복, 허량, 박도상 등 포함)이 5월 중순 흑석구를 따라 내려가다가 관찰한 마지막 지표유출 복류시작지점은 12일에 본 '2~3리의 물'이 복류하기 시작하는 대각봉 북북동의 '입지암류' 지점이었다. 그러나 8월초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갔을 때는 '5리의 물 흐름'이 있었고, 그 하류에도 '내의 흔적(川痕)'이 분명했다. 따라서 그들은 내의 흔적이 사라지는 지점이 '입지암류'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필자의 답사와도 일치한다. 2015년 6월 30일(음력 5월 15일)과 7월 2일(음력 5월 17일) 필자가 흑석구 다리 상류와 하류를 답사할 때, 골짜기는 분명하였으나 하상에서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있어도 매우 부분적이었다. 6월 29일 늦은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또 7월 2일에도 비가 내렸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물줄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 흐른 자국을 지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6일(음력 6월 22일) 갔을 때는 흑석구 다리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서 모두 물이 흐른 흔적이 뚜렷하였다(그림 5~6). 8월 4일 집중호우가 내렸고, 8월 6일에도 비가 왔다. 아마도 8월 4일 집중호우에 의해 물줄기가 형성되었다가 사라진 직후였기 때문에, 물이 흐른 흔적이 뚜렷했을 것이다. 1712년 음력 8월초에도 사정이 이와 유사했기 때문에 홍치중, 허량·박도상은 '입지암류' 지점을 내의 흔적과 지표유출 흔적이 사라지는 황화송전자 부근으로 설정하였을 것이다.

둘째, 목극등이 그 지점(정계비로부터 50여 리 지점, 황화송전자 부근)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임진정계의 경계표지물은 정계비로부터 '제1파 초파 수출'까지는 목극등의 주요 경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황화송전자 부근의 흑석구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은 목극등이 직접 지나갔던 지점이고, 8월 초에 가보니 그곳까지 '내의 흔적(川痕)'이 있고 그 하류로는 일정구간 '내의 흔적'이 사라지므로, 그들은 황화송전자 부근을 '입지암류' 지점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목극등은 5월 17~18일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흑석구의 물이 복류하여 지도에 표시된 북류하천(마침내는 '서류하는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9일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두만강 용출처로 향했다. 그리고 중간에 '제1파 초파'를 만나자 12일에 본 대각봉 북북동 지점의 2~3리의 물이 '입지암류'하여 '제1파 초파'에서 나온다('水出')고 생각했다.

북한지도에 의하면, 필자가 확인한 황화송전자 부근 흑석구 마지막 토퇴 설치 지점의 해발고도는 약 1,380m, '제1파 초파 수출' 지점의 해발고도는 대략 1,350~1,330m로, 고도차가 30~50m밖에 되지 않으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30여 리(12.6㎞ 이상)이다.[47] 반면, 대각봉 북북동 입지암류 지점의 해발고도는 1,840m로, '제1파 초파 수출' 지점과의 고도차는 490~510m이며, 두 지점 사이의 지도상 평면거리는 대략 16㎞ 전후이다. 이러한 점만 생각해도 양천척(量天尺)을 가지고 온 목극등이 흑석구 황화송



그림 5. 흑석구 하도 지표유출 흔적(1)
주: 흑석구 다리 상류 1.8㎞ 지점(2015.8.6.)



그림 6. 흑석구 하도 지표유출 흔적(2)
주: 흑석구 다리 하류 0.5㎞ 지점(2015.8.6.)

전자 부근의 마지막 토퇴에서 물이 '입지암류'하여 '제1파 초파 수출'에서 나온다고 보았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치중, 허량·박도상은 흑석구의 황화송전자 부근 마지막 토퇴 지점이 '입지암류'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목극등이 황화송전자 부근을 '입지암류' 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5월 28일 경흥부에서 조선측에 발송한 자문(咨文)에 기재된 '석봉암류(石縫暗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부석 골짜기 바닥이 침식되어 현무암·조면암·유문암 암해 및 균열 파쇄대가 노출되고, 지표유출이 지하유출로 전환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황화송전자 인접 상류의 하도가 사라지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부석, 부석토, 부식토 하상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 지점은 대각봉 북북동의 흑석구 하도이며, '입지암류' 지점이 흑석구의 끝, 황화송전자 부근이라고 본 이화자의 주장은 목극등의 요구와 홍치중 및 허량·박도상의 실행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흑석구에는 끝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4. '토문강원'(흑석구)의 송화강 유입 여부

1) '토문강원'(흑석구)의 송화강 유입 여부에 대한 이화자의 주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토문강' 또는 '토문강원'이라 불리는 하천을 오늘날 중국 지도에서는 '黑石溝'(헤이스거우: 흑석구)라고 표기한다(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 2002). 이 지명은 1908년 봉길감계위원(奉吉勘界委員) 선용지현(選用知縣) 유건봉(劉建封)에 의해 명명되었다. 유건봉에 의해 명명될 때의 구간은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까지였다. 정계비와 대연지봉으로부터 시작되는 흑석구는 중간에 사을수(斜乙水)를 받아서 오도백하(송화강 지류)로 들어간다. 오늘날 '흑석구'라는 명칭의 구간은 정계비와 대연지봉으로부터 오도백하 합류점까지이다.

정계비 설치 당시 이 하천에 별도의 공식적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목극등은 이 하천을 토문강(두만강)의 최상류로 보았고, 그에 따라 '土門'이라는 이름을 정계비에 새겼다. 임진정계 당시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였다. 이후 이 골짜기가 두만강 수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지만, '토문강'이라는 지명은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골짜기가 '토문강'이라고 불린 것은 조선인이나 일본인의 억지 탓이 아니라, 목극등의 수계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계비가 1931년 7월 28일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두만강으로 들어가던 송화강으로 들어가던 상관없이, 비문에 쓰여 있는 바에 따라 그 골짜기를 '토문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1964년 3월 20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변계의정서」 제7조와 8조에 '黑石溝(土門江)'이라는 형식으로 지명이 표기된 것이다(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處辦公室編印, 1974, 24; 29).

최근 흑석구가 송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화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화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정계비로부터 이어진 석퇴·토퇴는 흑석구를 따라 황화송전자까지 설치되었는데, 흑석구는 오도백하(송화강 상류)로 흘러들지 않는다. 흑석구는 황화송전자에서 골짜기와 물이 사라진다. 이것이 흑석구의 진실이고, 흑석구의 비밀이다(이화자, 2012, 156-158; 2013, 272). 1907년에 이르러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면서 흑석구는 더더욱 송화강 상류로 굳어져버렸다. 일본인들이 답사한 후 그린 지도를 보면, 흑석구를 송화강 상류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문강'이라고 칭하여 두만강과 구별하였다. 이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흑석구의 진실은 계속 감춰진 대로 있었으며, 줄곧 송화강 상류로 인식되었다(이화자, 2013, 266). 흑석구는 송화강 상류가 아니며,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은 더더욱 아니다. 흑석구의 토석퇴 길이가 약 23킬로미터 즉 54리(1리가 420미터)이며, 흑석구의 전체 길이가 약 24킬로미터 즉 57리이다(이화자, 2013, 278).

이 글들을 통하여, 이화자가 흑석구는 송화강으로 흘러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흑석구는 오도백하로 유입되며, 송화강 수계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관련 기록의 검토

(1) 이의복

1712년 5월 11일 군관 이의복은 목극등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는 오늘날 흑석구에 대해 "토문강물은 축인(丑寅: 동북) 방향으로 흘러들며, 보이는 바가 80리 먼 데까지 되었다(80리까지 보였다)."[48]라고 기록하였다. 백두산 정상에서 정계비까지 능선을 따라 10리 정도이므로, 정계비로부터 70리 정도 거리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흑석구가 정계비로부터 50여 리 지점인 황화송전자를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12년에는 지금보다 식생이 적었을 것이므로, 물길이 그렇게 멀리까지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이의복이 보내고 접반사 박권이 5월 19일 저녁에 받아 본 서신의 "비를 세운 곳에서 동류하는 물은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로 들어갑니다."라고 한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의복도 목극등과 마찬가지로 '토문강원'(흑석구)이 토문강(두만강)으로 흘러들지 않고, 마침내는 '서류하는 물'(송화강 지류)[49]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김우식

1882년 6월 김우식(金禹軾)은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명에 따라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골짜기를 답사하였다. 그의 답사 결과는 "다음날(19일: 양력 8월 2일) 또 (입비처에) 가서 20장을 탁본하였다. 서쪽에서 대각봉을 넘어 석둔(石屯) 끝으로부터 토둔(土屯)을 따라 토문을 나와 거품돌이 덮여있는 개울(泡石浦)로 내려와 80여 리에서 멈추어 잤다. 이상 건천(乾川)이 100리에 가까웠다. 그 아래에서 차차 내를 이루어 길게 흐르고 커졌다."[50]고 기록되었다. 김우식 역시 흑석구가 건천이지만,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오록정

1907년 백두산을 답사한 연길변무방판(延吉边务帮办) 참령(參領) 오록정(吳祿貞)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의 서쪽으로 하나의 도랑이 있는데, 서남쪽으로 압록강에 들어간다. 비의 동쪽에 하나의 도랑이 있는데, 장백산의 동록을 둘러 동북쪽으로 간다. 조선은 이알력개(이깔이개)라 부르고, 중국말로 옮기면 황화송구자(黃花松溝子)가 된다. 도랑의 동남안에 석퇴가 백여 개 있다. 석퇴가 다하는 곳은 장백산 정동에 이르며 대각봉이 된다. 이곳을 지나 그대로 동북행하는 도랑의 동남안에 또 토퇴 수십 개가 있다. 토퇴 위에 나무가 있으며, 토퇴 옆의 평지에 있는 나무와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이 서로 같다. 토퇴가 다하는 곳은 비로부터 90리(당시 조선 리, 1리 420m−필자) 라고 한다. 생각건대, 지금 비가 서 있는 곳에서 실제로는 30~40리(당시 중국 리, 1리 576m−필자)를 넘지 않는다. 또 동북으로 수십 리를 가면 이 도랑은 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래로 낭낭고(娘娘庫)로 들어가며, 꺾여서 서북으로 흘러 송화강에 들어간다.[51]

오록정은 이알력개(이깔이개: 黃花松溝子: 黑石溝)에 대해 "토퇴가 다하는 곳으로부터 또 동북으로 수십 리를 가면 이 도랑은 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으므로, 당시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물 흐름은 이어져 있지 않았지만, 흑석구 하도는 송화강에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오소네 세이지(시노다 지사쿠)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총무과장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훗날 경성제국대학 총장)는 측량수

오소네 세이지(大曾根誠二) 등을 시켜 1907년 양력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계비와 그로부터 이어진 '토문강'을 답사하도록 하였다. 오소네 세이지가 작성한 노상측량도(路上測量圖)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지도(MT14133)[52]이다. 오소네 세이지의 답사에서 얻어진 사실을 시노다 지사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 탐험에 의해 정계비는 백두산의 동남록 1리(조선 리 10리) 남짓 압록·토문 두 강의 분수령 위에 있으며, 비후(碑後) 약 수 정(町)의 지점에서 시작하여 동동북을 향해 뻗은 일도(一道)의 지하(地鏬: 땅의 틈)는, 이야말로 토문강의 본류로서, 정계비와 거리가 약 7,000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오른편을 따라 석퇴(石堆)가 점점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석퇴가 다하는 곳에는 양인(兩岸)의 높이 약 100미터의 단애(斷崖)가 있어 문과 같이 치솟아 있는데, 이 지하(地鏬)는 이곳으로부터 하천의 형상을 정(呈)하여 커다란 삼림 사이를 동북으로 약 4리(조선 리 40리)를 뻗어 사천(砂川)이 되고 방향을 북으로 돌린다. 사천의 연장은 약 1,000미터로 그로부터 하류 약 3리(조선 리 30리) 사이에 세류(細流)를 이루며, 이하 양안 절벽(兩岸絕壁) 수류(水流)의 곤곤(滾滾)함이 약 18리(조선리 180리)로,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마침내 송화강 상류의 이도강(二道江)[53]에 합하고, 소사하구자(小沙河口子)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도(嚮導: 길잡이) 토인(土人)은 일찍이 석퇴에 이어져 삼림 안으로 약 6리(조선 리 60리) 사이에 토퇴(土堆)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하나, 빽빽하게 가득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동북아역사재단, 2013, 164-165).

오소네 세이지의 지도와 이 기록에서도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골짜기(흑석구)는 송화강 수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이화자는 오소네 세이지의 지도가 흑석구를 송화강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대각봉 이하의 토퇴들 그리고 황화송전자와 두만강 용출처 사이에 분포하는 토퇴들('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화자, 2012, 147)고 하였으나, 그것은 과도한 추측일 뿐이다.

오소네 세이지의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흑석구는 송화강으로 이어지며, 그 지도에 근거한 위 인용문은 황화송전자 부근을 「'모래내(砂川)'–'가는 물 흐름(細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소네 세이지 일행의 답사목적은 어디까지나 정계비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협곡 골짜기 하도를 따라간 그들의 눈에 대각봉 이하 삼림 속에 드문드문 설치된 토퇴들이 보였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들었지만 직접 보지 못하였기에 지도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답사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이 토퇴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화자는 일본인들이 흑석구를 '토문강'이라 칭하여 두만강과 구별한 것도 문제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일본인들이 제작한 1933년 일제지형도에는 오늘날 흑석구에 '토문강'이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이 지도의 「소백산」, 「백두산」 도엽에는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설치된 석퇴·토퇴가 황화송전자 부근까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원지(圓池)」 도엽에는 오늘날 도화선 도로변에서 관찰되는 토퇴군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1933년 일제형도의 백두산 일대 도엽들은 지형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오늘날 중국 경내는 정보량이 소략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제판(假製版)'[54]이라고 단서를 달아 출판하였다. 1933년 일제지형도의 제작자들은 '도화선 도로변 토퇴군'을 보지 못하였거나 주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상황에서 본 것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일 뿐이며, 오류는 있어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작은 사실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사실이 확인되어야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오소네 세이지의 지도는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길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

실을 나타낸 지도이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까지 만들어진 지도 중 매우 근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1933년 일제지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5) 유건봉

1908년 '흑석구(黑石溝)'라는 지명을 명명한 유건봉은 다음과 같이 썼다.

> 흑석구: 일명 흑석하(黑石河)라고 한다. 청풍령에서 발원한다. 서북으로 목석(穆石: 정계비)과 백여 보 떨어져 있다. 물 흐름이 가늘다. 검은 돌이 많다. 물이 있는 곳이 매우 드물다. 남안의 상류에는 겹쳐 쌓은 석퇴가 약간 있다. 하류에는 쌓은 토퇴가 약간 있다. 골짜기의 길이는 46리[55]이다. 황화송전(黃花松甸)에 이르러 곧 평평하게 흐르다가 자취가 사라진다(平衍無蹤).[56]

이로 보아, 유건봉의 '흑석구'는 골짜기 하상에 검은 돌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고, 그 구간은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57]

여기서 언급된 '황화송전(黃花松甸)'에 대해 유건봉은 "또는 일리활가(一里闊街)라고 부른다. 신민둔(新民屯: 오늘날 신무성-필자) 북쪽에 있으며, 서로 40리 떨어져 있다. 소나무껍질로 만든 집 2채가 있다. 사냥꾼 1명이 있다."[58]고 하였다. '황화송전'은 '황화송전자(黃花松甸子)' 또는 '황화송구전자(黃花松溝甸子)'라고도 불린다. 모두 잎갈나무(黃花松: 장백낙엽송)과 관련된 것이다. '일리활가'는 1리의 개활지라는 뜻이다.

유건봉은 그의 책에 실린 장백산지도에서 흑석구가 송화강의 지류인 사도백하(四道白河: 오도백하의 오류)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그렸다(그림 7).[59] 이 화자는 유건봉을 따라 흑석구가 황화송전자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흑석구가 오도백하로 흘러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이의복(1712년)과 김우식(1882년)은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흑석구)이 송화강으로 연결된다고 하였고, 간도논쟁이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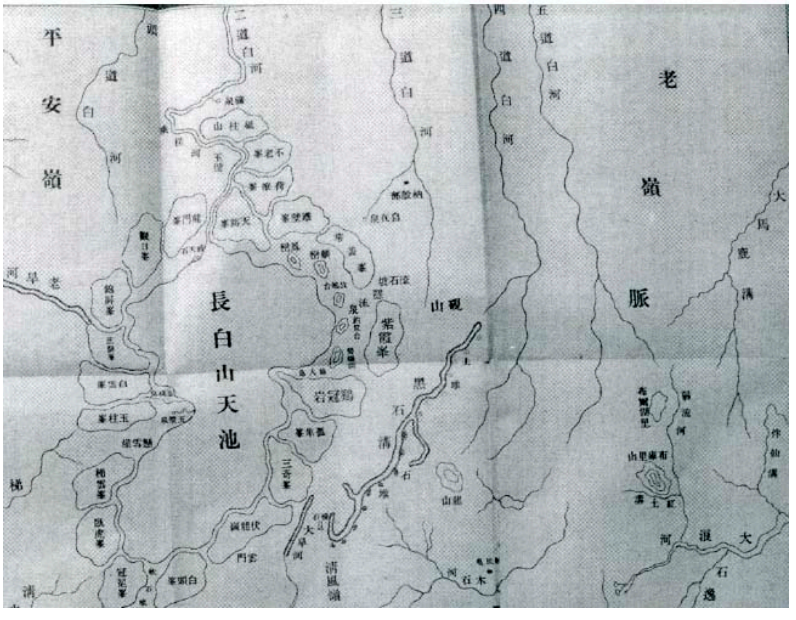


그림 7. 유건봉『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岡志略)』지도(부분)
주: '長白山天池' 동쪽에 '黑石溝'가 내륙하천처럼 그려져 있다. 그 끝이 황화송전자이다.

열하던 1907~1908년 사이에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흑석구)를 답사한 오록정(淸), 오소네 세이지(日), 유건봉(淸) 중 유건봉만이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물줄기(흑석구)가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평연무종(平衍無蹤)'하여 송화강으로 흘러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흑석구가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끝나고, 물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정계비로부터 이 지점까지가 일종의 '내륙하천'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3) 답사를 통한 '토문강원'(흑석구)의 송화강 유입 확인

북한의 학자들에 의하면, 백두산 지구의 해발 1,400m 이상의 부석 분포지역에서 하계망 형성발전의 단계는 ⓐ 부석운반단계, ⓑ 0.3~1.85m의 부석동굴 형성단계, ⓒ 'V'자형 부석 골짜기 형성, 측면 침식 및 붕락, 부석곡지 바닥 부석 운반에 의한 보다 넓은 골짜기 형성 단계, ⓓ 부석 골짜기 바닥 침식, 현무암·조면암·유문암 암해 및 균열 파쇄대 노출, 지하유출 전환 단계, ⓔ 건곡 하상에서 토양형성 및 식물성장, 안전한 형태의 건곡 또는 부석매몰하상 형성단계로 나뉜다.[60] ⓐ~ⓔ 단계가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점의 국지적 상황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 단계가 이루어지며, 일부 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필자는 2015년 8월 6일 흑석구 다리에서 흑석구 하도를 따라 상류쪽 약 2.1㎞ 지점(북위 42°03′19.02″, 동경 128°14′44.56″)까지 걸어갔는데, 이 구간에서 ⓒ와 ⓓ단계에 해당하는 지형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다.

ⓒ단계의 'V'자형 부석 골짜기는 흑석구 다리 부근에서 관찰된다(그림 8~9). 측면 침식 및 붕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골짜기 바닥에서는 일시적 지표유출에 의한 부석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식생이 정착한 곳도 있었다.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의 양안 절벽이 마치 흙문(土門)과 같아서 '토문강'이라 불렸다."라는 후대의 추론은 흑석구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V'자형 부석 골짜기에 근거한 것이다.[61]

ⓓ단계의 부석 골짜기 바닥 침식, 현무암·조면암·유문암 암해 및 균열 파쇄대 노출 역시 흑석구 다리 상류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0~13).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이루어진 골짜기 형태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출된 암해와 균열 속으로 지표유출의 전부가 흘러들기 때문에, 지표유출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적이지 못하고, 치밀한 기반암이 노출된 구간에서만 있게 된다. 표면유출은 봄철 눈석임 때와 여름철에만 있게 되지만 유출의 연도별 변화 진폭은 크지 않고 비교적 균등하다.[62]

ⓔ단계에서는 초본식물로부터 잎갈나무 등 목본식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과거의 하천 골짜기 유물만이 형태적으로 남아 있거나 평탄화된 '유물건곡



그림 8. 부석 골짜기의 붕락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8.6.)



그림 9. 'V'자형 부석 골짜기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6.30.)



그림 10. 하상 침식과 현무암 자갈 노출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8.6.)



그림 11. 현무암 노출 및 부석 하상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8.6.)



그림 12. 조면암 암괴 노출 하도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8.6.)



그림 13. 현무암 암괴 노출 하도
주: 흑석구 다리 상류(2015.8.6.)

(遺物乾谷)'이 된다.[63]

흑석구 다리에서 황화송전자까지는 하도를 따라 거리가 약 3㎞이며, 북한지도에서 두 지점의 해발고도는 각각 1,410m, 1,380m로 나타난다. 경사가 매우 완만하며, 부석들이 퇴적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두 지점 사이의 골짜기 바닥에 부석들이 깔려 있다(그림 14~15)[64].

흑석구 다리 부근으로부터 하류(下流) 양안에 계단식 지형이 나타난다. 계속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골짜기가 좁고 얕아지며(그림 16~18), 중간에 계단식 지형이 사라진다. 이후 낙엽이 쌓여 있는 매우 얕고 작은 도랑이 나타난다(그림 19). 점차 도랑의 흔적마저 미미해지며, 평탄화된 하도에 분류(分流)의 흔적을 볼 수 있다(그림 20). 특히, 황화송전자를 약 500m 앞두고는 미미했던 도랑의 흔적도 사라진다(그림 21). 이 부근에서는 잎갈나무가 울창한 주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잎갈나무 외에도 분비나무(白松: 臭冷杉)가 다수 관찰된다. 잎갈나무, 분비나무, 자작나무(白樺樹), 잣나무((紅松) 등의 울창한 식생으로 인해 지형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지만, 마치 경사도가 매우 낮은 작은 선상지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부석들이 이 구간의 바닥에 퇴적되어 있으며, 부석층의 토양화가 진행되었고, 그 위에 식생으로 인한 낙엽 및 부식토가 쌓여 있다. 따라서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부터 황화송전자에 이르는 구간은 북한 학자들의 구분에 따르면, ⓔ의 부석매몰에 의해 하상의 평탄화가 이루어지고, 토양형성 및 식물생장이 이루어진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림 14. 부석 퇴적 하상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6.30.)



그림 15. 부석 퇴적 하상의 부석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6.30.)



그림 16. 황화송전자로 향하는 하도(1)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8.6.)



그림 17. 황화송전자로 향하는 하도(2)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6.30.)



그림 18. 황화송전자로 향하는 하도(3)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7.2.)



그림 19. 황화송전자로 향하는 하도(4)
주: 흑석구 다리 하류(2015.7.2.)



그림 20. 황화송전자 부근의 평탄화된 하도
주: 황화송전자 상류 약 700m 지점(2015.7.2.)



그림 21. 황화송전자 부근의 하도 소실
주: 황화송구전자 상류 약 500m 지점(2015.7.2.)

이화자가 흑석구~황화송전자를 답사한 시기는 2012년 5월 말~6월 초이다. 이 시기에 백두산에는 비가 적게 내린다. 필자는 2015년 6월 30일과 7월 2일 그리고 8월 6일에 흑석구~황화송전자를 답사하였다. 이 시기는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운 음력 5월 15일 그리고 흑석구를 따라 내려가서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지숙한 음력 5월 17일과 일치한다. 일부러 어렵게 날짜를 그렇게 맞추어 가보았다. 우연하게도 6월 29일 오후 늦게부터 30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고, 7월 2일에도 비가 왔다. 필자는 6월 30일 임도를 통해 황화송전자를 확인한 후, 다시 흑석구 다리로부터 하도를 따라 황화송전자까지 걸어갔다. 7월 2일에는 흑석구 다리에서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다시 걸어가서 주변지형을 검토하였다. 8월 6일에는 흑석구 다리 하류 동남안의 토퇴들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하도를 따라 흑석구 다리 상류 약 2.1㎞까지 올라갔다.

6월 30일 갔을 때, 하도가 사라지는 황화송전자 상류 약 500m 지점부터 황화송전자까지는 0.3~0.5m 높이의 관목과 풀이 조밀하게 자라고 삼림마저 울창해서,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관목 밑으로 바닥에 등산화가 젖을 정도로 물이 고인 곳들이 있었다.

당일 필자는 황화송전자 진입로와 황화송전자에서 뚜렷한 물 흐름과 물 흐름의 흔적을 목격하였다. 흑석구 다리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개설된 임도(林道)를 따라 약 2.3㎞ 들어가면, 다시 동쪽으로 난 임도를 만난다. 이 도로를 따라 약 500m 들어가면 황화송전자가 나온다. 황화송전자 개활지의 동서 길이는 약 300m이다. 이 800m(=500m+300m)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물 흐름과 그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동쪽으로 황화송전자에 이르는 길 초입에서 물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2~24). 좌표는 대략 북위 42°04′59.58″ 동경 128°16′22.32″이다. 부석층을 따라 흘러나온 것으로 보였다. 물 흐름은 남에서 나와 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6㎞ 더 북쪽으로 간 지점에서 그 하류를 확인한 결과 역시 물 흐름이 근근이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황화송전자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으로부터 황화송전자 방향으로 약 60m 더 들어가서 길바닥에 나무들을 깔아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25). 좌표는 대략 북위 42°04′58.64″, 동경 128°16′23.88″이다. 셋째, 황화송전자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으로부터 약 690m 들어가 황화송전자 동쪽 끝 부근에 이르러, 역시 길바닥에 나무를 깔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좌표는 대략 북위 42°04′53.68″, 동경 128°16′50.36″이다(그림 26). 길바닥에 나무를 깔아 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할 때 땅이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흑석구 골짜기는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찰해본 결과, 황화송전자 자체가 일종의 습지초원이었다. 이는 중국어의 '전자(甸子: dianzi: 뎬쯔)'라



그림 22. 황화송전자 부근 복류 유출

주: 남에서 북으로 물이 흘러나온다. 황화송전자 진입로 초입(2015.6.30.)



그림 23. 황화송전자 진입로의 물 흐름(1)

주: 우측(남)에서 흘러나온 물이 좌측(북)으로 흘러나간다. 황화송전자 진입로 초입(2015.6.30.)



그림 24. 황화송전자 진입로의 물 흐름(2)

주: 그림 23의 반대방향(2015.6.30.)



그림 25. 황화송전자 진입로의 고임목

주: 진입로 입구에서 60m 지점(2015.6.30.)



그림 26. 황화송전자의 고임목

주: 진입로 입구에서 690m 지점(2015.6.30.)



그림 27. 황화송전자 북쪽 모습

주: 진입로 입구에서 700m 지점(2015.6.30.)

는 말에 단순히 '초지' 또는 '방목지'라는 의미 외에 '저습초지(低濕草地)'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지형상 동쪽과 동북쪽이 약간 높았다. 경사가 거의 없는 단단한 용암대지 위에 쌓인 부석층이 토양화되면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화송전자를 전후한 물 흐름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08년 유건봉의 기록에 황화송전자를 '일리활가(一里闊街)'라고도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초지가 더 넓었던 것 같다. 지금은 남북폭 150m, 동서폭 300m 정도의 불규칙한 타원형이며, 관목류 및 자작나무, 잎갈나무 등의 천이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27).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정계비와 대연지봉에서 시작하는 흑석구는 황화송전자를 약 500m 정도 앞두고 하도가 사라진다. 이 지점에서 황화송전자에 이르는 구간에 지표유출이 이어지는 시기는 눈석임(눈석이) 때(봄)이거나, 여름에 강도 높은 폭우가 내리는 때뿐이다. 이들 시기 직후나 보통의 강우 직후에는 부석층을 복류하여 흘러나오는 물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황화송전자 자체가 습지초원이다. 따라서 수계는 확인되며, 오도백하—송화강 수계임이 분명하다. 북한 학자들의 연구에 비추어보아도 흑석구의 황화송전자를 전후한 골짜기는 동일 수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300여 년 전인 1712년에는 지금보다 부석매몰·평탄화·토양형성·식물생장 등에 의한 '유물건곡화'가 덜 진행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흑석구는 오도백하를 통해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이의복이 박권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극등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두만강 용출처 방향으로 향했던 것이다.

4) 유건봉과 이화자가 '토문강원'(흑석구)이 송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이 송화강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을유감계(1885)·정해감계(1887)에서도 조·청 모두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다. 그러나 유건봉은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흑석구가 송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건봉의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岡志略)』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그의 견해가 1908년 자신의 백두산 답사 전후하여 한국과 일본에 의해 활발히 제기된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부정과 관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간도영유권' 주장을 부정한다. 첫째, 그는 흑석구 동남안에 설치된 석퇴·토퇴는 임진정계의 경계표지물이 아니라, 강희 16년(1677)에 내대신(內大臣) 각라무묵납(覺羅武默納)[65]이 장백산에 제사지내러 올라가면서 길 표시로 쌓은 것이라고 하였다.[66] 따라서 경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둘째, 그는 조선측이 '정계비'라고 부르는 것은 변방을 조사(查邊)하고 돌을 새겨 사사로이 기록한 '목석(穆石: 목극등 돌)'일 뿐이라고 하였다.[67] 따라서 경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셋째, 그는 흑석구가 송화강에 유입되지 않고 황화송전자에서 자취가 사라지며,[68] '목극등 돌' 중의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은 청나라의 변경이 압록강과 토문강(두만강)이라는 두 강을 천연적인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가리킬 뿐, '목극등 돌'의 바로 서쪽이 압록강이고 바로 동쪽이 토문강(두만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69] 따라서, 그는 당시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土門'이라는 지명을 회피하고, '흑석구(黑石溝)'라는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냈다. 그는 조선과 일본의 주장대로 '목극등 돌'과 석퇴·토퇴가 경계표지물이라 하더라도, '흑석구'가 송화강에도 연결되지 않고, 두만강에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그는 포태산(胞胎山: 북포태산·남포태산)을 분수령으로 하는 '대랑하(大浪河)'와 '성수거(聖水渠)'를 한·중 국경으로 보았다.[70]

이화자 역시 유건봉의 연장선에서 '간도영유권' 주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화자는 1907년에 이르러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면서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흑석구가 송화강 상류로 굳어져버렸고, 지도에 이 하천을 송화강 상류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문강'이라고 칭하여 두만강과 구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유건봉의 기록과 자신의 답사를 근거로, 이 하천이 송화강에 유입되지도 않고, 두만강과 구별되는 '토문강'도 아니며, 황화송전자에서 사라지는

‘흑석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을 ‘토문강’이라고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이후 일본인들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극등은 정계비로부터 대각봉 북북동 ‘입지암류’ 지점에 이르는 구간을 ‘토문강 원류(두만강 원류)’로 인식하고, 그의 지도에 ‘土門’이라 표기하였다. 조선측도 청측이 두만강을 ‘토문강(土門江)’이라고 표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조선측이 ‘토문강 원류(두만강 원류)’를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에 이르는 구간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 목극등과 다를 뿐이다.

또한 정계비 설치 이후 1907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흑석구를 ‘토문강’ 또는 ‘토문강원’으로 불렀다. 임진정계 당시 ‘토문’이 두만강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훗날 사람들로서는, 정계비 설치 당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하천 시작점에 세워진 비석에 ‘土門’이라고 쓰여 있고, ‘토문(土門)’이 ‘두만(豆滿)’과 글자도 다르며, 이 하천이 두만강으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토문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이 송화강에 유입된다는 것은 1907년 이후 일본인들이 발견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며, 을유·정해감계에서 조·청 모두 인정하고 있던 사실이다.

‘간도영유권’ 주장이 논리와 근거가 허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건봉과 같이 송화강에 유입하는 하천을 유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하천에 아예 ‘흑석구’라는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간도영유권’ 주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화자는 흑석구의 물이 이곳에서 끝난다면, 정계비의 ‘토문강’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되고, 정계비로부터 이어져온 경계표지물 또한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 두만강 용출처로 향하기 때문에,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유입된다는 것과 경계표지물들이 송화강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한 ‘간도영유권’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화자는 조선측이 설치한 경계표지물이 황화송전자 부근에 이르러 동남방향의 두만강 용출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황화송전자가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복류 시작점)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입지암류’의 근거로 유건봉의 ‘평연무종(平衍無蹤)’을 들고 있다. 그러나 목극등의 ‘입지암류’ 지점이 황화송전자라는 주장은 역사적 기록과 지리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목극등이 1712년 5월 19일 두만강 용출 지역에서 지목한 물(‘제1파 초파 수출’)도 결국은 오도백하(송화강 지류)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극등의 수계 판단에만 따르자면, 여전히 ‘간도영유권’ 주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필자처럼 ‘입지암류’ 지점을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로 보아도, 목극등의 수계 판단은「정계비–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복류–‘제1파 초파 수출’–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타타르 해협(오호츠크 해 남단)」으로 이어지는 선(혹은 지대) 이남의 광대한 면적이 조선의 영토라는 결과를 낳으며, 이화자처럼 ‘입지암류’ 지점을 황화송전자로 보아도, 목극등의 수계 판단은「정계비–흑석구–황화송전자–복류–‘제1파 초파 수출’–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타타르 해협(오호츠크 해 남단)」으로 이어지는 선(혹은 지대) 이남의 광대한 면적이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1712년 5월 11~19일 사이에 이루어진 목극등의 수계 판단에 의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극등은 이렇게 잘못된 수계 판단을 했음에도, 이후 계속 토문강(두만강)을 따라 하구까지 갔다. 그에 더하여, 조선측 실무인원들은 목극등 귀국 후 경계표지물을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까지 연결시켰다. 임진정계 참여자들의 두만강(토문강) 수계 판단 중 유일하게 옳았던 것은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이 찾아낸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였다. 결국, 전체적인 수계판단은 잘못되었지만, 두만강(토문강)을 조·청의 경계로 한다는 것은 청측이나 조선측이나 모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목극등 지도에 표시된 ‘입지암류(入地暗

流)'의 위치와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土門江源')의 송화강 유입 여부를 중심으로 임진정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① 목극등 지도의 '입지암류'는 복류시작 지점을 의미하며,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도를 따라 지도상 평면거리 약 9.5㎞(실제거리로는 약 12.5㎞) 떨어진 지점으로,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 해발고도 약 1,840m 지점이다. 좌표로는 대략 북위 42°01′09.13″, 동경 128°10′26.00″이다. 목극등의 '입지암류' 지점을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로 보지 않고, 황화송전자 부근의 흑석구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기록과 지리적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② 오늘날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토문강원')은 흑석구로 불리며, 오도백하를 거쳐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흑석구는 비록 황화송전자 인접 상류 약 500m 구간에서 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구간에서도 눈석임 시기와 폭우시기에 지표유출이 이어지며, 보통의 강우 직후에는 부석층을 복류하여 흘러나오는 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황화송전자 자체가 습지초원이다. 유건봉과 같이, 황화송전자 인접 상류 일정 구간에서 하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근거로, 이 하천이 송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과 지리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진정계시 '토문강원(두만강원)'(흑석구)은 송화강 수계가 분명하다.

확인된 이 두 가지 결론을 적용하여, 임진정계 과정에 대해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극등은 1712년 5월 12일 정계비를 설치할 지점으로부터 이어지는 하천(흑석구)이 대각봉 북북동 지점에서 '입지암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하천이 '입지암류' 지점에서 복류하기 시작하며, 다시 용출하여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같은 날 청측인원 2명과 조선측 김애순·조태상·김응헌이 이 지점부터 하도를 따라 30여 리 지점(황화송전자 하류 약 2㎞ 지점 부근)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청측인원 2명이 "맑은 물이 과연 동류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은 '입지암류' 지점으로부터 30여 리 떨어진 '동류하는 물'까지의 사이에서 지표유출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목극등은 '입지암류'에서 복류하는 물이 30여 리 떨어진 곳에서 용출하여, 동류한다고 생각했고, 그 '동류하는 물'이 토문강(두만강)이라고 생각했다. 기록에 송화강은 북류하고, 압록강은 남류하며, 토문강(두만강)은 동류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5월 15일 정계비를 세웠다. 정계비 비문 중의 '토문'은 두만강을 의미한다. 그는 백두산정계비를 압록강·토문강(두만강) 최상류 분수계에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압록강·송화강 최상류 분수계 부근에 세웠다. 압록강·두만강의 최상류 분수계는 대연지봉이다. 대연지봉은 압록강·송화강·두만강의 분수계이다. 목극등은 정계비 부근의 수계를 잘못 판단하였다.

셋째, 5월 17일 목극등 일행은 흑석구 동남안을 따라 내려갔고, 17~18일경 황화송전자 부근에서 나오는 물이 북류·동류·북류하다가 마침내는 '서류하는 하천'(송화강 지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서류하는 하천'은 임진정계 참여자들이 찾는 토문강(두만강)이 아니었다. 그러자 그는 5월 19일 조선측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이 가리킨 토문강(두만강) 용출처를 찾아 다시 이동하였고, 도중에 하나의 물줄기('제1파 초파 수출')를 만나자, 이 물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 용출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 자신이 12일에 확인한 '입지암류' 지점부터 물이 복류하다가 이곳에서 나와서('水出')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조선측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이 가리킨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에는 가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지목한 '제1파 초파 수출'이 토문강(두만강)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류라고 생각하였고, 이 지류가 소류(小流: '제1파 소류')로 이어지고, 그 소류가 조선측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이 가리킨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에서 흘러나오는 '제2파'(원파(元派))에 합류하여, 토문강(두만강)이 된다고 보았다.

넷째,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목극등은「정계비–'토문강원'–'입지암류'–'제1파 초파 수출'」을 따라서 경계표지물을 설치할 것을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그는 토문강(두만강)이「정계비–'토문강원'(흑석구)–대

각봉 북북동 '입지암류'–복류–'제1파 초파 수출'–'제1파 소류'–'제1파 소류'와 '제2파' 합류–토문강(두만강) 본류–동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조·청의 국경으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그는 토문강(두만강) 본류를 따라 하구가 보이는 곳까지 갔다.

다섯째, 그러나 조선측은 목극등이 귀국한 후, 8월초 경계표지물 설치를 위한 수계 조사과정에서 목극등이 지목한 '제1파 초파 수출'이 두만강(토문강) 수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조선측 허량·박도상 등은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 자신이 5월 19일에 찾은 지점이 진정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계비–'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근–'제1파 초파 수출'–두만강(토문강) 용출처」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중 정계비로부터 25리와 황화송전자 부근으로부터 '제1파 초파 수출'을 거쳐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에 이르는 40여 리에 경계표지물을 1712년에 설치하였다. 경계표지물이 '제1파 초파 수출'을 경유한 것은 목극등이 지목한 '수출' 지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도 1713년 3월 이러한 실무자들의 견해를 추인하였고, 이후 그에 따라 정계비로부터 25리 지점~황화송전자 부근 구간에 대한 경계표지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조선측은 두만강(토문강)이 「정계비–'토문강원'(흑석구)–황화송전자 부근–복류–두만강(토문강) 용출처–두만강(토문강) 본류–동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경계표지물 설치에 대한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 허량·박도상 등의 실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섯째,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 허량·박도상 등의 실행 사이의 차이는 목극등이 말한 '입지암류' 지점의 모호함과 '제1파 초파 수출'의 수계 판단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백두산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입지암류'(복류 시작)는 강수량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형성될 수도 있다. 목극등이 5월 중순 흑석구를 따라 내려가다가 관찰한 마지막 지표유출 복류 시작 지점은 대각봉 북북동의 '입지암류' 지점이었다. 그러나 8월초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이 갔을 때는 이 '입지암류' 지점 하류에도 물 흐른 자국('내의 흔적(川痕)')이 분명했다. 따라서 그들은 물 흐름의 흔적 내지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이 '입지암류'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그 지점이 바로 황화송전자 부근이다. 조선측 허량·박도상 등은 이러한 사실과 목극등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점을 들어, 1712~1713년에 「정계비–'토문강원'(흑석구) 동남안–황화송전자 부근–'제1파 초파 수출'–두만강(토문강) 용출처」로 이어지는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에 이르는 하도(물)는 오도백하(송화강 지류)로 합류하며, 수계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과 관계가 없다. 또한 '제1파 초파 수출'도 두만강(토문강) 수계가 아니었다. '입지암류' 지점의 모호성과 '제1파 초파 수출' 수계 판단 오류가 목극등의 요구와 조선측의 실행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일곱째, 청측 목극등의 '토문강원(두만강원)'은 정계비로부터 그 자신이 지도에 '입지암류'라고 표시한 대각봉 북북동 흑석구 하도까지의 구간이며, 조선측 홍치중, 허량·박도상 등의 '토문강원(두만강원)'은 정계비로부터 황화송전자 부근 흑석구 하도가 사라지는 지점까지의 구간이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토문강원(두만강원)'이라고 이해한 물줄기가 복류하여 두만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 모두 흑석구의 일부 구간이자 송화강의 상류이며, 수계에 있어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다.

여덟째,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우고 난 이후, 정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오늘날 흑석구라고 부르는 하천을 '토문강(土門江)' 내지 '토문강원(土門江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흑석구 시작점에 세워진 비석에 '토문'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임진정계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비문의 '토문'이 '두만'을 의미하며, 그 물이 중간에 복류하다가 솟아나와 두만강(토문강)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부른 경우가 있다. 또한, '토문'과 '두만'이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만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 경우도 있다. 나아가, 글자도 다르고 두만강으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임진정계 당시 비문 중의 '토문'이 '두만'을 의미하였다는 것은 잊혀지고,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오늘날 흑석구라고 부르는 하천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 역

시 흑석구 시작점에 세워진 비석에 '土門'이라고 쓰여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양측 절벽이 마치 흙문(土門)과 같아서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부른다."는 주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흑석구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V'자형 부석 골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후대의 추론일 뿐이다.

아홉째, 임진정계시 청측 목극등과 조선측 참여자들은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토문강)을 조·청의 국경으로 인식하고 정계에 임하였다. 문제는 정계과정에서 두만강(토문강) 수계를 잘못 이해했다는 점이다. 압록강 수계 이해는 비교적 정확했으나, 두만강(토문강)에 대한 수계 판단에서 유일하게 옳았던 것은 '갑산사람'(김애순)과 박도상이 발견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였을 뿐이다. 따라서 임진정계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진정계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임진정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설치된 경계표지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경계표지물의 설치과정·구간별 특징·종점, 간도문제 및 현재 북·중 국경에 대한 함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될 논문들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

1) 일본의 지리학자 다나까 슈사쿠(田中秀作, 1932, 381)에 따르면, "간도는 만주 北東山地區의 남동부 두만강(圖們江) 본류·지류의 연안 평야 및 구릉지로 구성되고, 대체로 화룡, 연길, 왕청의 3현을 포괄하는 약 21,500㎢의 지역이다. 원래 간도란 '간도(墾島)' 또는 '간토(墾土)'의 뜻으로, 강과 강 사이의 하중도(中洲) 옥간(沃墾)을 조선인 이주민들이 개간하여 경지로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때로는 지방명칭을 취하여 무산 간도, 회령 간도, 종성 간도, 온성 간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전체로서는 그 구역이 전술한 3현 외에 더 넓게 동쪽의 훈춘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메이지 42년(1909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간도에 관한 협약에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본인을 위해 개방하도록 한 때의 구역은 화룡, 연길의 2현과 왕청현, 안도현의 일부이지만, 지형 인문 상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전술한 바와 같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이화자는 2011년 8월 중국 경내 임간통시도(林間通視道) 부근 흑석구 답사, 2011년 10월 임간통시도 근처 흑석구 토퇴 확인, 흑석구 다리 동북쪽 토퇴 확인, 2012년 5월~6월 도화선 도로 남쪽 부근의 토퇴군 발견, 황화송전자 확인, 2012년 8월 북한 경내 정계비터 및 석퇴 확인 등의 실지조사를 하였다.

3) '황화송구전자(黃花松溝甸子)'라고도 불린다.

4) 필자가 조사한 토퇴의 구체적인 위치 및 특징, 임진정계 경계표지물의 구간별 특징 및 종점, 목극등의 수계 판단 문제, 두만강의 정원 문제, 사료해석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기로 한다.

5) 김지남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도는 목극등과 동행한 화공 유윤길(劉允吉)이 자신이 그린 원본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1712년 5월 24일 무산 풍산진에서 목극등이 역관 김지남에게 주면서, 접반사 박권을 통하여 조선 숙종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경조약의 부속지도라는 성격을 갖는다. 박권 역시 그의 「북정일기」(5월 24일)에서 이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는 '임진년 목가 오랑캐 극등이 정계할 때 모사한 것'이라는 뜻이며, 이름 '克登'은 작게 쓰여 있다. 참고로, 목극등(1664~1735)의 성은 '富察'(傅)이다(百度百科 '穆克登' 項目). 이름이 '穆克登(mukedeng: 무커덩)'이며, 이는 만주어 'Mukden'의 음역으로, '번성하다(盛)'라는 뜻이다.

6) 洪世泰(金慶門), 「白頭山記」, 5월 12일: 甲午, 克登謂土門源流間斷伏行地中, 疆界不明, 不可輕議竪碑, 乃令其二人, 同愛順往審水道, 金應瀗, 趙台相隨後, 行六十餘里, 日暝二人者還, 白水果東流矣. 이 문장에 이어지는 홍세태(김경문)의 기록은 5월 12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朴權, 「北征日記」, 5월 19일: 夕, 見李宣傳官書, 有曰, 立碑處東流之水, 末皎西流, 摠管以爲此非豆滿江源流, 更向加察峯下湧出之水, 與半使監司相議處之云.

8) 洪世泰(金慶門), 「白頭山記」, 5월 12일: 遂鑱, 而立之, 旣竣事, 下山歸到茂山.

9) 金指南, 『北征錄』, 5월 17일: 昏時大雨之中, 筆帖式蘇爾禪, 率從人三名, 賚持摠管之奏本, 從白山而馳到, 慶兒亦隨而來.(날이 저물 무렵 큰 비가 오는 가운데, 필첩식 소이선이 종자 3명을 인솔하여 총관의 주본을 가지고, 백두산으로부터 말을 달려왔다. 경문 역시 따라서 왔다.)

10) 金指南, 『北征錄』, 5월 18일: 早朝, 李宣傳義復馳告曰, 摠管以豆江源流或有斷流之處必也, 明白審視爲可, 今將沿流

而下去, 云云.(이른 아침, 선전관 이의복의 말을 달린 보고에 이르기를, 총관이 두만강원류에 물 흐름이 끊어진 곳이 있을 것이니, 명백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금 물 흐름을 따라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운운하였다.)

11) 金指南, 『北征錄』, 5월 19일: 十九日. 辛丑. 晴. 早朝, 白山行差員軍官等馳報曰, 摠管必欲審視沿江, 旣已發行, 遠近遲速有未可知(이른 아침, 백두산으로 간 차원과 군관 등의 말을 달린 보고에 이르기를, 총관이 기필코 강을 따라 살펴보고자 이미 출발하였으며, 멀고 가까움과 느림과 빠름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의복의 이 보고는 17일 오전 중에 대각봉 부근 지숙처와 황화송전자 부근 지숙처 사이에서 발송된 것이 분명하다.

12) 목극등은 강희 49년(1709)~50년(1710) 사이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그려진 지도를 참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극등 지도 상단에 그려진 5줄기의 북류 하천들은 임진정계시 목극등 일행이 답사를 통해서 처음 확인하고 그린 것이 아니라, 목극등이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도를 참조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두만강도 그렸다. 「康熙 皇輿全覽圖」나 『古今圖書集成』의 「盛京疆域全圖」에는 목극등 지도의 5줄기의 북류하천을 받아들이는 '서류하는 하천'이 그려져 있으며, 이 하천은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13) 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1712) 12월 7일(병진): 許樑·朴道相의 진술:…當初穆差自白山下來時, 朴道常及甲山指路人等, 先送于豆江湧出處, 使之等待….

14) 오늘날 '소홍단수'를 가리킨다. 1933년 일제지형도에는 '大紅湍水'로 표기되어 있다. 金指南, 『北征錄』, 5월 12일: "이른바 홍단수의 수원은 사태봉(沙汰峰) 밑에서 나오며, 굽이치고 돌고 돌아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이다.…물 흐름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커졌으므로 소·중·대의 명칭이 있게 되었다."

15) 조선측 기록에서는 '漁潤江'으로 표기되며, 오늘날 西頭水를 가리킨다.

16) 오늘날 延面水를 가리킨다. 1933년 일제지형도에서 朴河川은 연면수의 지류이다.

17) 목극등은 볼하진·회령부(25일), 고령진·방원진·종성부(26일), 동관진·영달진·온성부(27일), 미전진·훈융진·경원부(咨文 발송)(28일), 안원보·건원보·아산진(29일), 무이진·경흥부(30일)를 거쳐, 두리산에서 두만강 하구 조망하였고, 아산진(6월 1일), 건원보· 경원부(呈文 수령)(2일)에서 두만강을 건너 귀국하였다(3일). 그는 두만강 본류를 따라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정계비의 '土門'은 두만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북한 자료는 2,358m로 기록하고 있다.

19) 목극등을 수행한 이의복, 김응헌, 김경문 등은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우고자 하는 곳은 두만강(토문강)의 근원일 뿐이니, 처음에 발견한 압록강의 근원(山穴: 西泉)에도 비석을 하나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목극등은 그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정계비 입비처에만 비석을 세웠다(김지남, 『북정록』, 5월 24일; 신영길(역), 2005, 124). 그러나 목극등은 조선측에 전달한 지도(그림 1)에는 처음 발견한 압록강의 근원에도 '鴨綠江源'이라고 써주었다.

20) 실제로 정계비 부근의 압록강·송화강 최상류 분수계(분수계 최상단)는 북한의 백두산 삭도 향도역으로부터 남서방향으로 지도상 평면거리 약 130m 지점, 외륜산 능선이다. 그러나 천지 자체가 송화강의 발원지이므로, 천지 외륜산 능선의 동남부 구간이 압록강·송화강의 분수계가 되며, 분수계의 최상단은 이 구간에 있는 백두산 최고봉(2,750m)이다.

21)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1997, 명지대학교 원본소장, 경인문화사 발행), 일련번호 37, 도엽번호 NK52-8-01, 1982년 제작, 도엽명: 백두산.

22) 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1712) 12월 7일(병진) 홍치중의 상소 참조.

23)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白頭圖本攷, 李義復記事 참조.

24) 이 표현은 1712년 5월 28일(경술) 목극등이 경원부에서 전달한 공식문서인 咨文에 나타난다(勅使問議立柵便否咨: 兩江發源分水嶺之中立碑, 從土門江之源順流, 而下審視流, 至數十里不見水痕, 從石縫暗流, 至百里方現巨水, 流於茂山(『同文彙考』 原編 卷之四十八(疆界); 金指南 『北征錄』(5월 28일)).

25) 이 표현은 1712년 6월 2일(갑인) 박권과 이선부가 목극등에게 전달한 呈文에 나타난다(分水嶺上立碑爲標, 而又慮土門江源暗伏潛流, 有欠明白, 旣以圖本親自指示(『同文彙考』 原編 卷之四十八(疆界); 金指南 『北征錄』(6월 2일)).

26) 강석화는 허량·박도상이 경계표지물을 설치한 하천을 표시하면서, 정계비 인접 동남향 구간을 동류 구간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강석화, 2000, 70의 그림 4 참조).

27) 육분의(六分儀: sextant) 등과 같은 고도를 측정하는 기구로 추정된다.

28) 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1712) 5월 15일(정유): 接伴使朴權, 咸鏡監司李善溥, 十三日馳啓曰…是日又馳啓曰, 摠管到鴨綠上流, 路險不得行, 越江從彼境作行, 而常以千里鏡照見山川, 又有量天尺, 一木板長可一尺餘, 廣可數寸, 背布象牙, 刻以分寸, 寸爲十二畫, 分爲十畫, 上設輪圖, 中立一小板, 似是測景之具也. 譯官願得白山圖一件, 摠管曰, 大國山川不可畫給, 而白山乃爾國也, 何難畫給.

29)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1997, 경인문화사), 일련번호 27, 도엽번호 NK52-5-41, 1990년 제작, 도엽명: 천지, 하단 참조.

30)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白頭圖本攷, 李義復記事: …還宿蘆田. 二十餘里到土門江邊, 水廣可三十餘步, 白沙平鋪流痕浪藉, 沿行五六里, 谷轉深而巖多, 且有流水, 復登左邊德上, 行四五里, 漸有陞高之勢, 自北邊下山, 乃土門江源湧出處, 而流二三里, 復入地中, 隱流三十餘里, 復湧出, 而始成大川, 其上無水處, 或濶或狹, 山高谷深, 界限分明, 此乃天所以限南北也. 分水嶺峽廣三十步許, 右邊未坤, 左邊寅甲, 俱有界谷, 而左偏山下平地微突, 上有巖石, 以此仍作壠臺, 淸使留此多日, 周覽分水之形勢, 勒石爲記, 依壠鑿石而立, 顧謂我人曰, 爾國得地頗廣云.

31) 조선후기의 1里가 현재의 몇 미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1周尺(20㎝)×1步(6尺)×1리(350步)=420m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는 이화자(2013, 272)의 계산방식과 같다.

32) 洪世泰(金慶門), 「白頭山記」, 5월 7일: 凡山坡迤高上平者, 北俗謂之德.

33) 북한지도의 백두산지역 하천표시는 대부분 물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복류구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제지형도가 보충적으로 도움이 된다. 한편, 그림 3에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지도 「천지」 도엽에는 중국 경내 흑석구 동남안에 10개의 토퇴가 표시되어 있다.

34) 구글어스 프로는 진북 기준이다. 그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고, 자편각이 서편차 약 8° 52′이므로, 실제로는 이 지점보다 약간 동쪽(대략 100m 전후)의 흑석구 하도일 것이다.

35) 홍세태(김경문)의 5월 12일 기록 중, "行六十餘里, 日暝二人者還"을 '입지암류' 지점으로부터 "60여 리를 갔다가 날이 어두울 때 2명이 돌아와"로 번역하면, 이것만으로도 이들이 최소 120여 리(12시간 이상)를 돌아다닌 것이 된다. 게다가 박달곶 갈밭 지숙처에서 '입지암류' 지점까지 40여 리(4시간 이상)이다. 아침에 '입지암류' 지점까지 걸어왔고,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자야 하므로, 이들이 이날 20시간 넘게 돌아다닌 것이 된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정계비로부터 "60여 리를 갔다가 날이 어두울 때 2명이 돌아와"로 이해한다 해도, 정계비로부터 박달곶 갈밭 지숙처까지 25리가 넘으므로, 이들이 이날 최소 17시간 이상을 돌아다닌 것이 된다. 역시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아침에 목극등과 같이 박달곶 갈밭 지숙처에서 출발하여, '입지암류' 지점에서 헤어져, 30여 리까지 갔다가, 목극등이 기다리고 있는 '입지암류' 지점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 함께 박달곶 갈밭 지숙처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청측인원 2명과 김애순 등이 이날 걸은 총거리는 140여 리(14시간 이상) 정도가 된다. 이날이 양력으로 6월 15일이므로, 아침 6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면, 목극등 일행은 이날 밤 9시 넘어서 박달곶 갈밭 지숙처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날 낮에 숙영지를 대각봉 부근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직 '동류하는 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숙영지를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자로도 "行六十餘里, 日暝二人者還"에서 '去(갈 거)'나 '往(갈 왕)'이 아니라 '行(다닐 행)'이 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 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1712) 5월 15일(정유): 善溥又馳啓曰, 更令惠山僉使, 詳審豆滿江源, 則江源出自白頭山顚中間, 斷流幾八九十里, 至甘土峰下一息許, 始自土穴中湧出, 凡三泒而爲豆滿江云.

37) 김경문의 견문은 홍세태가 「백두산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경문은 자신의 아버지 김지남이 이미 『북정록』을 썼기 때문에, 아버지와 겹치지 않는 부분만을 구술하였다. 김경문은 15일 정계비 설치 후 목극등 일행과 결별하고, 17일 날이 저물 무렵 무산부에 돌아왔다.

38) 金指南, 『北征錄』, 5월 17일: 朝陰暮雨, 留茂山府…昏時大雨…. 이것은 무산의 날씨를 기록한 것이지만, 무산에 비가 내릴 경우에 백두산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39) 실제거리로는 약 12.5㎞ 정도로 추정된다.

40) 백두총서편찬위원회 등, 1992, 백두산 기상수문, 백두산 지구 중국 송화강 상류하천의 특성, CNC북한학술정보(收錄 面數 不明).

41) 김지남은 목극등을 따라 백두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혜산에서 허항령(虛項嶺)을 지나 무산으로 갔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의 글에 나타나는 날씨기록은 백두산 정상부의 날씨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두산 정상부에서는 오히려 그의 기록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42) 조선왕조실록, 숙종 38년(1712) 12월 7일(병진): 自立碑下二十五里, 則或木柵或累石, 其下水出處五里及乾川二十餘里, 則山高谷深, 川痕分明之故, 不爲設標. 又於其下至湧出處四十餘里, 皆爲設柵, 而其間五六里, 則旣無木石, 土品且强, 故只設土墩.

43) 백두산 북록 二道白河의 평균강수량은 6월 109㎜, 7월 157㎜, 8월 138㎜이다(中國中央氣象臺).

44) 백두총서편찬위원회 등, 1992, 백두산 기상수문, 백두산 지구 중국 송화강 상류하천의 특성, CNC북한학술정보(수록 면수 불명).

45) '제1파 초파'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46) 흑석구 경계표지물 설치에 대해서는 홍치중과 허량·박도상의 견해에서 불일치를 발견할 수 없다. 별도의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경계표지물 설치에 대한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목책의 종점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홍치중이 목극등

의 '제1파 초파 수출'까지만 목책을 설치하라고 한 것에 대해, 허량·박도상이 '제2파 용출처'까지 설치해버린 것이다.

47) 필자가 조사한 임진정계 토퇴의 위치·방향·구간 및 '제1파 초파 수출'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될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48)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白頭圖本攷, 李義復記事: 土門江水流入丑寅方, 所見爲八十里之遠. 이에 대해 이화자는 기존의 번역을 따라, "토문강물이 동북으로 흘러들어 80리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49) 흑석구는 오도백하(五道白河)를 거쳐 송화강으로 유입된다. 오도백하는 송강진(松江鎭) 삼도향(三道鄕)부터 서류하기 시작한다. 송강진 부근을 을유·정해감계 시기에는 '낭낭고(娘娘庫)'라 불렀고, 오도백하를 '낭낭고하(娘娘庫河)'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50) 金魯奎, 『大韓北輿要選』, 探界公文攷, 金禹軾探界路程記: 曰…翌日…又往, 刊二十張, 西踰大角峯, 自石屯尾, 從土屯, 出土門, 下來泡石浦, 八十餘里止宿, 以上乾川近百里, 以下次次成川, 長流而大.

51) 吳祿貞, 『延吉邊務報告』, 第五章 吉韓界務之始末, 23-24: 碑之西, 有一溝, 西南去, 入鴨綠, 碑之東, 有一溝, 繞長白山至東麓, 東北去朝鮮呼伊戛力蓋, 譯華言爲黃花松溝子, 溝之東南岸, 有石堆百餘, 石堆盡處, 已至長白山正東, 爲大角峰, 過此, 仍東北行, 溝之東南岸, 又有土堆數十堆, 上有樹, 與堆旁平地之樹, 大小高低相等, 土堆盡處, 距碑已九十里, 按: 距今碑所立處, 實不過三四十里, 又東北行數十里, 此溝始見水, 下入娘娘庫, 折而西北流, 入松花江.

52) 이 지도는 이화자의 논문(2012, 147)에 수록되어 있다.

53) 三道白河(三道江)를 착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계비로부터 이어지는 하천은 五道白河로 들어간다. 이 부근에서 오도백하에 합류하는 하천은 상류로부터 三道白河, 小沙河, 二道白河, 古洞河(古洞河에 大沙河가 합류한다) 순이다.

54) 「백두산」, 「소백산」, 「증산」, 「유평」, 「원지」, 「곽지봉」, 「농사동」, 「삼포산」, 「포태리」, 「장산령」, 「관모봉」 등 도엽의 우측 상단에 "本圖는 當部(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정식의 製版에 앞서서 신속하게 일반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지형측량 원지도를 가제판에 부쳐 만든 것으로, 圖畵가 불선명하게 된 것을 인정한다."고 쓰여 있다. 좌측 하단에 정가를 14전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일반인에게도 판매한 것이다.

55) 약 26.5㎞이다. 조선 후기 리로 환산하면, 63리이다.

56)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62: 黑石溝, 一名黑石河, 源出淸風嶺, 西北距穆石百餘步, 河身微細, 多黑石, 有水之處甚尠, 南岸上游疊有石堆若干, 下游積有土堆若干, 溝長六十里, 至黃花松甸, 卽平衍無蹤.

57) 오늘날 흑석구는 정계비와 대연지봉으로부터 오도백하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조선인들은 이 하천을 '이깔이개'(이알력개(伊戛力蓋: 伊嘎力蓋로도 표기): 이깔나무(잎갈나무) 개울)이라고 불렀다.

58)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46: 黃花松甸, 又名一里闊街, 在新民屯北, 相距四十里, 有松皮房兩間, 獵夫一名.

59) 유건봉은 흑석구가 四道白河 방향으로 흐르지만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흑석구와 관련된 하천은 五道白河이다. 아무튼 그는 흑석구가 송화강으로 흘러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60) 백두총서편찬위원회 등, 1992, 백두산 기상수문, 백두산 지구 하계망 형성발전의 특성, CNC 북한학술정보(收錄面數 不明).

61) 만주어에서 '穴'을 의미하는 'Tomon(토몬)'도 중국어 음역으로는 '土門(tumen: 투먼)' 등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복류, 용출 내지 협곡 구간에 예로부터 '土門'과 같은 지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이강원, 2007a; 2007b). 한편, 정계비 설치 이후 일부 조선인들은 오늘날 흑석구 일부 구간 양안에 '흙문(土門)'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계비문의 '土門'이 두만강이 아니라, 오늘날의 흑석구라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계비문의 '土門'은 두만강을 의미한 것이 분명하다.

62) 백두총서편찬위원회 등, 1992, 백두산 기상수문, 백두산 지구 하계망 형성발전의 특성, CNC 북한학술정보(收錄面數 不明).

63) 백두총서편찬위원회 등, 1992, 백두산 기상수문, 백두산 지구 하계망 형성발전의 특성, CNC 북한학술정보(수록면수 불명).

64) 그림 14~21은 흑석구 다리로부터 황화송전자에 이르는 하도 모습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65) 중국어 발음이 유사하므로, '武默納'를 '吳木訥'로 표기하기도 한다.

66)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94: 按黑石溝南岸之石堆土堆, 原係吳木訥登山記路所築, 與分界無涉.

67)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106: 穆石辯: 穆石者, 乃穆總官查邊後, 勒石自記者也.

68)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62: 黑石溝…至黃花松甸, 卽平衍無蹤.

69)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107: 西爲鴨綠, 東爲土門, 是指我國之邊, 以兩江爲天然綫, 并非謂石西卽鴨綠, 石東卽土門之詞.

70) 劉建封(天池釣叟), 『長白山江岡志略』, 100: 按, 大浪河聖水渠, 二水分流, 實爲中韓國界.

참고문헌

古今圖書集成: 方輿彙編職方典, 陳夢雷(鼎文書局印行, 臺北, 1976) .
大韓北輿要選, 金魯奎(190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同文彙考(국사편찬위원회, 1978).
白頭山記, 洪世泰(이상태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北征錄, 金指南(이상태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北征日記, 朴權(백산학보, 16, 1974).
延吉邊務報告, 吳祿貞(190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長白山江岡志略, 天池釣叟(劉建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동북아역사재단, 2013).
假製版 五萬分之一地形圖(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 ·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33).
康熙皇輿全覽圖(外文出版社, 北京, 2007).
盛京疆域全圖(古今圖書集成 수록).
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山東省地圖出版社, 2002).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서울대학교 규장각, 輿地圖(古4709-1) 수록).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경인문화사, 1997).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동북아역사재단, 2013, 譯註『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동북아역사자료총서 43, 동북아역사재단.
劉忠傑 · 沈惠淑, 1993, 白頭山과 延邊朝鮮族-地理學的 研究, 白山出版社.
백두총서편찬위원회, 1992, 백두총서: 백두산 기상수문, 과학기술출판사(CNC 북한학술정보 백두산데이터베이스).
신영길(역),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樂浪書院, 東京).
李康源, 2007a, "조선 초 기록 중 '豆滿' 및 '土門'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19(2), 45-57.
李康源, 2007b,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 · 土門江 · 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91-118.
李康源, 2010, "「大東輿地圖」 白頭山 · 豆滿江 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國境認識, 位置 · 語源 및 誤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474-496.
이왕무 · 정욱재 · 양승률 · 서동일(역), 2008, 역주『감계사등록(上)』, 동북아역사재단.
이왕무 · 정욱재 · 양승률 · 서동일(역), 2010, 역주『감계사등록(下)』, 동북아역사재단.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연구, 혜안.
이화자, 2012, "중국 · 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土堆群)의 새로운 발견," 문화역사지리, 24(3), 140-159.
이화자, 2013, "백두산 정계의 표식물: 흑석구(黑石溝)의 토석퇴에 대한 새로운 고찰," 동방학지, 162, 241-281.
田中秀作, 1932, 新滿洲國地誌, 古今書院, 東京.
吉林省革命委員會外事處辦公室編印, 1974, 中朝 · 中蘇 · 中蒙有關條約 · 協定 · 議定書匯編.
李花子, 2011, "康熙年間穆克登立碑位置再探," 社會科學輯刊, 第6期(總第 197期), 188-196.
李花子, 2014, "黑石溝土堆考," 清史研究, 第1期, 37-52.
Google Earth Pro.

교신: 이강원,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haekong@jbnu.ac.kr)
Correspondence: Kang-Wo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city, Jeonbuk, 54896 Korea (e-mail: haekong@jbnu.ac.kr)

최초투고일 2015. 11. 26
수정일 2015. 12. 15
최종접수일 2015. 12. 23